슌이는 쥬져ᄒᆞᆫ다 김즁비는 더욱ᄌᆡ촉ᄒᆞ며

「어서가요 ᄉᆞᄅᆞᆷ이 웨그리 졸ᄒᆞ여

ᄒᆞ며 순이의압흐로 갓가히오더니 억ᄀᆡ를 탁처서 돌여세운다 순이는 홀연 얼골이 취ᄒᆞ며 처신무지ᄒᆞ야 그모친을 바라보니 모친의압헤셔 남ᄌᆞ의 란잡ᄒᆞᆫ 힝동을 무이녁임이아니라 도로혀 ᄌᆞ긔의 몸가지기를 잘못ᄒᆞᆫ것갓치 붓그러워ᄒᆞᆫ다

김즁비의 심즁은 이럿틋 아름다운 녀ᄌᆞ와ᄒᆞᆫ가지로 옥슈를더위잡고 사ᄅᆞᆷ업는 산ᄉᆞ길로 한가히 슈쟉ᄒᆞ며 다니는쟈미가 얼마큼 질거우리오ᄒᆞ야 마음은발서 공즁에서 비회ᄒᆞᆫ다

「쟈ㅣ어서갑시다 어머니ᄭᅴ셔도 허락을ᄒᆞ셧는ᄃᆡ 그리쥬져ᄒᆞ고 잇단말이요」

그부인은 슌이의 붓그리는모양을보고

「웨 그리늬 가기실으냐」

「아이고 쟝모ᄭᅴ셔는 가기실으냐고 웨무러보심니가 가거라ᄒᆞ고 명령(命令)을헙시오

슌이와부인은 한가지로웃는다 김즁비도 ᄯᅡ라셔웃는다 이리닷토면서 일힝은 그럭져럭 만슈ᄃᆡ아ᄅᆡ에나려와 긔ᄌᆞ릉으로 넘어가는곳에 다다랏는ᄃᆡ 홀연 그릉(陵)안으로좃ᄎᆞ 구두쇼ᄅᆡ 산에울니여 들니는지라 슌이는 ᄉᆞᄅᆞᆷ이잇는가ᄒᆞ

야살펴보나 형용은 보이지아니ᄒᆞ고 발ᄌᆞ최만 들니는ᄃᆡ 유산ᄎᆞ로나션 ᄉᆞᄅᆞᆷ인지 ᄯᅩ는 일이잇서 다니는ᄉᆞᄅᆞᆷ인지 분쥬ᄒᆞ고 급히무엇을 찻는것갓치 발ᄌᆞ최가요란ᄒᆞ다

「그러면 네가갓치가서 구경ᄒᆞ고오나라 ᄂᆞ는 여긔서 기다리깃다

순이는 간신히ᄂᆞ오는 목쇼ᄅᆡ로

「어머니도 갓치가서요」

김즁비는 그모친과 ᄒᆞᆫ가지로가면 도로혀 ᄌᆞ미가업스리라ᄒᆞ야 어ᄃᆡ ᄭᅡ지든지 그모친은 가지못ᄒᆞ게 ᄒᆞ는말이라

「아니오 어머님을 뫼시고ᄀᆞᆺ스면 좃기는ᄒᆞ깃지만은 여긔를좀 나려다보구료 로인이 거긔를 ᄂᆞ려가시깃쇼 그것은 구경이아니라 곡경이될셀 그리ᄒᆞᆫ단말이오 이왕여긔ᄭᅡ지 왓스니ᄭᅡ 우리나가서 구경ᄒᆞ고 잠간옵시다 장모게서는 이ᄃᆞ음날 이아ᄅᆡ 조흔길로 다시인도ᄒᆞ야서 보시게ᄒᆞᆯ터이니 졋먹는 어린아ᄒᆡ도아닌ᄃᆡ 어머니를 그닥지 ᄯᅥ나지를 못ᄒᆞᆫ담 허々々」

이ᄯᅢ에 처음붓터 들니든구두(靴)소리는 졈々각가이 들이더니 홀연 ᄯᅮᆨ ᄯᅳᆺ치는지라 발ᄌᆞ최나던ᄉᆞᄅᆞᆷ은 발서지내여감인가 ᄒᆞ얏더니 지내여감이아니라 칠팔간이나 동안ᄯᅳᆫ 소나무ᄉᆞ이에서 발을멈추고 이편우에서셔잇는 일힝의힝동을 여허보고 잇슴이라 그러나 이편에잇는 셰ᄉᆞᄅᆞᆷ은누가잇슴을 아지못ᄒᆞ엿더라

그곳에 몸을숨기여 잇는스름은 고등학교모ᄌᆞ(高等學校帽子)를쓰고 학싱양복을 입엇는ᄃᆡ 억ᄀᆡ에는 칙너흔가방을 엇메엿스니 그스름은 분명ᄒᆞᆫ 리슈일(李守一)이로다

조곰잇더니 다시 구두소ᄅᆡ가 갓가히들니며 졸연히 그언덕우으로 웃둑올나스는 스름이잇는지라 그제야 이편에잇던 네스름은 발ᄌᆞ최ᄂᆞᆫ곳을 향ᄒᆞ야도라보니 일ᄀᆡ 단아ᄒᆞᆫ학싱이 그엽헤와셔 셧더니 문득모ᄌᆞ를벗고 부인을향ᄒᆞ야 공손이례ᄒᆞ며

「지금 서울서나려오는 길이올시다」

슌익와 모친은 경악(驚愕)ᄒᆞ야 거의스름의 정신을일엇더라 모친은 능히 얼골을 보고ᄌᆞᄒᆞᄂᆞᆫ힘도업고 먹먹ᄒᆞ야 다만 눈만둥그러케쓴고 잇서々 잠시ᄂᆞᆫ셕상(石像)ᄀᆞᆺ치 움작이지못ᄒᆞᆫ다 슌익는 몸을쥬체ᄒᆞ기 어려와서 이자리에셔 살아닛나니보다 검불ᄀᆞᆺ치 슬어져셔 이흙과ᄀᆞᆺ치되고ᄌᆞ ᄒᆞᄂᆞᆫ마음이ᄂᆞᆫ다

싱각ᄒᆞ건ᄃᆡ 져두녀ᄌᆞ의 놀ᄂᆡ임과 무셔움은 ᄌᆞ긔손으로 살히(殺害)ᄒᆞᆫ 스름이다시 살아와셔 셔로ᄃᆡ홈과ᄀᆞᆺ치 졍신을 진졍치못ᄒᆞ며 모친은 몽즁에 셤어(譫語)ᄒᆞ듯이

「아이고 자네ᄂᆞ려왓네 그려」

슌익는 조곰이라도 ᄌᆞ긔형상을 남의눈에 띄우지안ᄎᆞᄒᆞ야 나무뒤으로 몸을

피ᄒᆞ얏스며 두군거리ᄂᆞᆫ가슴에 헐떠거리여지ᄂᆞᆫ 숨쇼리를 남이듯지못ᄒᆞ게 ᄒᆞ노라고 슈건으로 입을가리우고 보기도어렵고 아니보기도 어려운 슈일의얼골을슈건틈으로 조곰식여어보며 흔편으로ᄂᆞᆫ 김즁빈의긔식을 살피인다

김즁빈ᄂᆞᆫ 그두사름의 가슴속에 각々이와ᄀᆞᆺ치 큰 파란(波瀾)이일어남은 조곰도 아지못ᄒᆞ고 그집에 엇더ᄒᆞᆫ친쳑되ᄂᆞᆫ 사름이 차ᄌᆞ나려옴인가ᄒᆞ야 별노히의심치아니ᄒᆞ고 금강셕반지낀손으로 단장을 휘두루면셔 가쟝 자랑이나 ᄒᆞᄂᆞᆫ것ᄀᆞᆺ치 좌쳠후고(左瞻彼顧)ᄒᆞ며 의긔양々ᄒᆞ다

슈일이ᄂᆞᆫ 발셔 그사나희ᄂᆞᆫ 김즁빈인줄도 알앗스며 그자리에셔 서로ᄒᆞᄂᆞᆫ모양도 모름이아니로ᄃᆡ 가슴에쳡쳡히싸인말은 나종에 조용이말ᄒᆞᆯ때가 잇스니 지금은조금이라도 스식을 낫타ᄂᆡ이지 아니ᄒᆞ리라ᄒᆞ고 가슴이터지ᄂᆞᆫ듯ᄒᆞᆫ 분ᄒᆞᆫ마음을 간신이진졍ᄒᆞ고 괴로이웃ᄂᆞᆫ얼골을 짓ᄂᆞᆫ다

「슌익ᄂᆞᆫ 여긔나려와셔ᄂᆞᆫ 병이좀 엇더ᄒᆞᆷ닛가」

슌익ᄂᆞᆫ 그말을드르ᄆᆡ 참지못ᄒᆞ고 감안이 슈건을 입에문다

「응 요시ᄂᆞᆫ ᄆᆡ우나은모양이야 ᄒᆞᆫ사날만 더지ᄂᆡ면 아조낫긧지 ᄌᆞ네ᄂᆞᆫ 여긔ᄭᅡ지와셔 만나보니 반갑기ᄂᆞᆫᄒᆞ구면은 학교ᄂᆞᆫ 슈유ᄒᆞ고왓나」

「네 슈유가아니라 이졔붓터 학교집을 곳치노라고 스날ᄒᆞ가게되얏셔요 그ᄅᆡ셔 그ᄅᆞᆷ에 잠간……」

리슈일과 김즁빈의 두스름에잇는 그부인의신세는 비유ᄒᆞ건ᄃᆡ 웅덩이에 빠
진몸이 잠기지도 아니ᄒᆞ고 빠져나오기도 어려운때에 목숨을살니라고 간신이
더위잡은 풀셕ᄀᆞ리를 조고마ᄒᆞᆫ쥐가 일으러 그셕ᄀᆞ리를 조음과ᄀᆞᆺ도다 진퇴가유곡
ᄒᆞ야 엇지ᄒᆞᆯ계칙이 업슴을 ᄒᆞᆯ일업시 마음을가다듬어 김즁빈를도라보며

「지금 셔울집에셔 사ᄅᆞᆷ이나려왓스니ᄭᅡ 불가불 쥬인잡은곳으로 나려가보긧
스니 ᄂᆡ일이라도 ᄯᅩ만나셰」

「네 그러ᄒᆞ시긧슴니다 그러면어셔 나려가시지요 져도나려가긧슴니다」

ᄒᆞ고 김즁빈는 나려가려ᄒᆞ다가 다시 슌ᄋᆡ의엽흐로 ᄀᆞᆺ가히나아가셔 ᄂᆞ작ᄒᆞᆫ말
로

「오날은 조흔긔회를 놋쳣스니 ᄂᆡ일은부ᄃᆡ함ᄭᅴ 구경다닙시다」

슈일은 눈도ᄲᅡᆷ짝이지 아니ᄒᆞ고 그모양을보고잇다 슌ᄋᆡ는 얼골을 불을세엿는
듯ᄒᆞ며 ᄃᆡ답을일으지못ᄒᆞ고 ᄒᆞᆫ엽으로피ᄒᆞ야 물너가니 김즁빈는 더욱더욱 ᄀᆞᆺ
가이 죳차오며 ᄎᆞ마그엽흘 ᄯᅥ느지못ᄒᆞᆫ다

「ᄂᆡ말을 아라드럿지요 부ᄃᆡ 응

슈일의눈에는 화렴(火炎)이 이러나는듯ᄒᆞ며 슌ᄋᆡ의얼골을 주린호랑이가 망
아지를 노리듯ᄒᆞ고잇다

그러나 김즁빈는 젼연히 남의긔식은 조곰도 살피지못ᄒᆞ고 다만어ᄃᆡᄭᅡ지던지

아름다운 슌ᄋᆡ의게 마음을두고 ᄒᆞᆯ일업시 ᄂᆞ려간다 그ᄃᆡ으로는 계집아ᄒᆡ하인
도 ᄯᅡ라간다

슌일은 그 ᄂᆞ려가는모양을 ᄃᆡ으로 바라보고잇기를 이윽히ᄒᆞᆫ다 두사ᄅᆞᆷ은 슈
일의의향을 아지못ᄒᆞ야 다시는 말도못지못ᄒᆞ고 숨도크게 쉬이지못ᄒᆞ고 셧는
ᄃᆡ 다만 쇼나무사이로 바ᄅᆞᆷ이 지ᄂᆡ여갈제마다 우ㅣ우ㅣᄒᆞ는소ᄅᆡ가 들닐ᄲᅮᆫ이
라

ᄒᆞᆯ연 이편으로 다시돌이키는 슈일의얼골은 혈식은ᄒᆞᆫ아도업고 흠빗치되여 웃
고조ᄒᆞ나 능치못ᄒᆞᄂᆞᆫ것갓ᄒᆞ야 간신히괴로운 우음을 은은이보이며

「여보슌ᄋᆡ 지금여긔셔 나려간놈이 요젼에 욧판에왓던 금강셕(金剛石)이로
군」

슌ᄋᆡ는 ᄃᆡ답이업고 입살만쉭문다 그모친은 못드ᄅᆞᆫ체ᄒᆞ고 맛춤 가지우에셔우
ᄂᆞᆫ 쐬쇼리안진곳을찻고잇다 슈일은 이모양을보고 다시 닝소(冷笑)ᄒᆞ기를 마
지아니ᄒᆞ며

「밤에 등불아ᄅᆡ셔 볼때에는 그닥지안터니 낫에조셔이보니ᄭᅡ ᄃᆡ단이거만ᄒᆞᆫ
놈이다 그려

그놈 안이ᄲᅩ은놈ᄀᆞᆺ흐니 상파닥이 ᄉᆡ긴것ᄒᆞ야가지고」

「여보게 ᄒᆞ며 그부인은 ᄒᆞᆯ연 슈일을부른다

「네ㅣ」

「그간에 우리집에셔 영감씌 무슨말숨을 듯지못ᄒᆞ엿는ᄂᆞ 이번 이일로ᄒᆞ야셔 필연 이약이가잇셧지

「네ㅣ」

「응 그러ᄒᆞ긧지 젼에는ᄌᆞ네가 남다려잘잘못을 무론ᄒᆞ고 이놈이라는놈ᄉᆞᄌᆞ 흔번 입에올니는것을 보지못ᄒᆞ얏더니 오날은웬일인가 남다러공연히 웨 욕을그럿게ᄒᆞ나

「네」

「그만어셔 우리도 나려가셰 여긔ᄉᆞ지 나려오노라고 고단도ᄒᆞ긧고 시쟝도ᄒᆞ긧네그려」

「아ㅣ니요 차ᄉᆞ속에셔 밥은사먹엇셔요」

졔ᄉᆞ름은 산아릭로 나려가기를 시작ᄒᆞ얏는ᄃᆡ 슌이는 뒤에싸라오고 슈일은가온ᄃᆡ셔셔 나려온다

홀연 뒤으로 억ᄀᆡ를 탁치는ᄉᆞ름이 잇는고로 도라다보니 슌이가 ᄌᆞ긔의억ᄀᆡ우에 무엇을 떠러쥰다

양복에 나무입파리가 뭇엇기여 떠러드렷셔요

수일은 비웃는모양으로

「응 ᄃᆡ단이 고맙쇼」

졔팔쟝 大同江岸 (ᄃᆡ동강안)

먼산에 월식은 몽농ᄒᆞ고 필육을 마젼ᄒᆞ야 고흔잔ᄃᆡ밧헤 너러노은것갓흔 ᄃᆡ동강(大同江)흐르는물은 젹젹히 잠드러잇는것갓치 잔잔(潺々)ᄒᆞᆫᄃᆡ 일엽편쥬로고기낙는ᄇᆡ는 이곳져곳에 흣터져잇셔 완연히 ᄒᆡ즁(海中)에잇는 셔음과 다름이업다 달아릭에 흐르는물결은 금결갓흔 물결이 영농히빗치는ᄃᆡ 띡띡로부러오는바름은 이셰샹에 ᄋᆡ원을 긔별ᄒᆞ는것갓다

반공에 쇼슨듯ᄒᆞᆫ 을밀ᄃᆡ(乙密臺)엽흐로 ᄒᆞᆫ줄거리 좁은길이 소나무ᄉᆞ이로 양의창ᄌᆞ갓치 얼키엿는ᄃᆡ 그길노좃ᄎᆞ 영명ᄉᆞ(永明寺)를지ᄂᆡ여 부벽루(浮碧樓)압흐로 나려오는 남녀두ᄉᆞ름이잇스니 ᄒᆞᆫᄉᆞ름은 리슈일(李守一)이오 ᄯᅩ ᄒᆞᆫᄉᆞ름은 심슌의(沈順愛)러라

「나는 단지 가슴이 터지는것ᄀᆞᆺ히셔 말ᄒᆞᆫ마ᄃᆡ 홀슈업소」

ᄒᆞ며 오륙보나 거러오도록 말이업다가 슌이는 간신히 입을여러

「잘못ᄒᆞ엿스니 용셔ᄒᆡ쥬시구료」

「지금와셔 잘잘못이 어ᄃᆡ잇단말이오 ᄃᆡ체 이번일은 그ᄃᆡ의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에잇셔셔 그럿케된일인지 ᄯᅩ는 그ᄃᆡ가 ᄒᆞ고ᄌᆞᄒᆞ야셔 그리된일인지 그것만아랏스면 그만이오

「……」

「여긔 나려올띡싸지라도 나는 졍말밋고잇셧지 그듸야셜마 그런싱각을먹으랴ᄒᆞ고……실샹으로 말을ᄒᆞ면 밋는니 아니밋는니 말ᄒᆞᆯ것인가 부부간인듸……

어졔져녁에 어르신네께 자셔ᄒᆞᆫ말슴은 드럿소 말슴만 ᄒᆞ실ᄲᅮᆫ이아니라 쳐음겸 마지막으로 쳥ᄒᆞ는것이니 졔발 나다려 드러달나고 ᄒᆞ시는구료」

흐르는 눈물에 슈일의목소릐는 벌벌썰닌다

「큰은혜를밧은 어르신네 늬외분말슴인듸 쳐음겸 마지막으로 네게쳥ᄒᆞ신다고 말슴ᄒᆞ시는듸야 엇지 아니들을슈가잇소 어르신네 늬외문씌 은혜밧은 싱각을ᄒᆞ면 늬몸은 죽는한이잇드릐도 ᄉᆞ양치아니 ᄒᆞᆯ터인듸 물에라도 드러가라ᄒᆞ면 드러갈것이오 불에라도 드러가라ᄒᆞ면 드러갈몸이오그려 그러나 물불에는 드러갈지언졍 이쳥은 진졍늬가 들을슈가업소 이말슴은나다러 물이나불에 뛰여드러가라는 말슴보다 더욱 심ᄒᆞ신말슴이오구료 너모도 억지의 말슴을ᄒᆞ시니ᄭᅡ 황송ᄒᆞᆫ말이지만은 어르신네를 은근이 늬속으로 원망ᄒᆞ얏소」

그리고 허고만은말에 달니라도 죠흔말이 만이잇슬터인듸 이쳥을 드러주면 학비를듸여주어셔 동경(東京)으로 유학(遊學)을 식여쥬깃다고 ᄒᆞ십듸다

아……아……아모리 리슈일이가 돈업고 뭇싱기고 무의무탁ᄒᆞᆫ 거지ᄌᆞ식일망뎡 계집판돈으로 동경유학(東京留學)갈싱각은 못ᄒᆞ깃소

슈일이는 부벽루(浮碧樓)기동에 의지ᄒᆞ야 강물을향ᄒᆞ고 뎨읍(涕泣)ᄒᆞ기를마지아니흔다 슌이는 그씩야비로소 슈일의압흐로 갓가히나아가셔 손목을붓들고 얼골을 드려다보며

「용셔ᄒᆞ야쥬시오 모든일은 늬가잘못ᄒᆞ얏스니 용셔ᄒᆞ야 쥬시구료

슈일의손을붓들고 고기는 슈일의억기에 다이더니 슌이도 또ᄒᆞᆫ 늑기며울고잇다

물ㅅ결은 양양(漾々)ᄒᆞ야 길게흐르고 월식은 죠요ᄒᆞ야 산과물이 ᄒᆞᆫ가지로 희엿는듸 다만 홈씌붓들고묵묵히셔셔잇는 두ᄉᆞ롬의 그림ᄌᆞ는 먹물을가라부은듯이 싸에빗초인다

「그릐도 나는 이럿케만 싱각을ᄒᆞ얏지그려 집에셔는 어르신네가 나를달늬시고 슌이는 모친씌셔 달늬시려고 억지로 이곳ᄭᅡ지다리고 온쥴노아랏소 어르신네 늬외분말슴이면 늬몸되야셔는 못듯을것업소 무슨말슴이든지 네네ᄒᆞ고 슌죵아니치 못ᄒᆞᆯ몸이지만은 슌이로말을ᄒᆞ면 아모리 부모의말슴이라도 아니드르려ᄒᆞ면 안들을슈가잇스니ᄭᅡ 슌이만 아모리ᄒᆞ야도 듯지못ᄒᆞ깃다고ᄒᆞ면 이번혼약(婚約)은 파의가되고말터이니……그리고 늬가업헤

잇스면 순이를쇼여셔 일을방히홀가 의심ᄒᆞ야셔 이러케 먼디방으로 다리고 와셔 쇄이려고 ᄒᆞᄂᆞᆫ것인줄 알고보니ᄭᅡ 쇽으로엇더케 엽녀가되ᄂᆞᆫ지 몰나셔 어졔ᄂᆞᆫ 밤시도록 잠ᄒᆞᆫ숌 쟈지못ᄒᆞ얏소 쳔만번이라도 그러ᄒᆞᆫ일은 업깃지만 은십벌지목이 업단말과ᄀᆞᆺ치 하도여러번 드르면 녀편네의 약ᄒᆞᆫ마음으로 참아못ᄒᆞ깃다ᄂᆞᆫ 말을못ᄒᆞ고 만일 허락을ᄒᆞ게되면 엇지ᄒᆞ리 ᄒᆞᄂᆞᆫ싱각에 집에셔ᄂᆞᆫ 학교에가ᄂᆞᆫ 모양으로 나와셔 바로이리로 나려온것이요 못싱기고 못싱기고 ᄯᅩ못싱기다ᄒᆞ기로 슈일이갓치 크케못싱긴놈은이텬디간에 다시업슬터이야 나ᄂᆞᆫ 이럿틋 조긔가 못싱길쥴은 스물셰살된 오날ᄭᅡ지도 모……모……몰낫지」

순이ᄂᆞᆫ 두려움과 비챵ᄒᆞᆫ마음이 일시에 흉즁으로 쏫ᄎᆞ이러나며 ᄂᆞᆺ기여가며 소릭쳐운다

분긔를참고잇던 슈일의 음셩(音聲)은 졈졈어지러워지며

「응 순이 너ᄂᆞᆫ ᄉᆞ름을 이러케 쇽인단말이냐

순이ᄂᆞᆫ 몸만 벌벌쓸고잇다

「의원보려 이리로 온다ᄒᆞ더니 김즁빅를 만나보려고 ᄒᆞᆫ일이지……」

「그런소리는 ᄒᆞ지마오 참 이ᄆᆡ……」

「흥 그소리는 이ᄆᆡᄒᆞ다」

「그런말슴은 조곰지심이야 아모리 이런ᄉᆞ름이기로 그럿케 과ᄒᆞᆫ말슴을……」

ᄂᆞᆨ기며 말을이르지 못ᄒᆞᄂᆞᆫ 순이의얼골을 슈일은 눈쇼리로 홀기여보며

「너도 그말이 과ᄒᆞᆫ쥴로아ᄂᆡ 니가ᄒᆞᆫ말을 심ᄒᆞ다고 싱각ᄒᆞ야셔 야속ᄒᆞ야 이럿케 울것ᄀᆞᆺ흐면 이 못싱긴 슈일이ᄂᆞᆫ……슈일이ᄂᆞᆫ……슈일이ᄂᆞᆫ 피ᄉᆞ눈물을 흘녀도 시원치가 못ᄒᆞ깃다

네가 만일 마음이 업ᄂᆞᆫ일ᄀᆞᆺ흐면 이리로 나려올졔만ᄒᆞ야도 ᄂᆡ게 그런말ᄒᆞᆫ마ᄃᆡ를 할일이지 별안간에 ᄯᅥ나느라고 말을ᄒᆞ지 못ᄒᆞ얏스면 와셔라도 편지로 조셔이 긔별을ᄒᆞᄂᆞᆫ것이 졍이지 별안간에 집에셔 ᄯᅥ나갈ᄲᅮᆫ아니라 ᄯᅥ나 나려온이후로는 일조소식이 업ᄂᆞᆫ것을본즉 쳐음부터 김즁빅ᄒᆞ고 만나쟈ᄂᆞᆫ약죠를 ᄒᆞ얏던것이 분명ᄒᆞ고 혹은함ᄭᅴ 나려왓ᄂᆞᆫ지도 알슈업지 순이야이년 너ᄂᆞᆫ 간부(奸婦)다 외인(外人)과 간통(姦通)ᄒᆞᆫ 계집이야」

「엇지면 그런소리를ᄒᆞ시오 아모리밉기로 그런소리를 엇지ᄒᆞ시오」

ᄒᆞ며 순이ᄂᆞᆫ 몸을간우지못ᄒᆞ고 ᄂᆞᆨ기여울면셔 몸을 슈일의게 의지코조ᄒᆞᄂᆞᆫ것을 슈일은 손을ᄲᅮ리쳐 슌이를물니치며

「몸을 더렵힌 계집이 간부(奸婦)가 아니고 무엇이란말이냐 응」

「언졔 ᄂᆡ가몸을더렵힌것을 보앗소」

「아모리 리슈일이가 못싱기고 쳔치기로 졔계집이 몸더럽히ᄂᆞᆫ엽헤 안쟈셔

보고 잇슬가 리슈일이라 ᄒᆞ는력々(歷歷)ᄒᆞᆫ 셔방을두고셔 잇는계집이 그셔방을 ᄂᆡ여바리고 다른스나희와함ᄭᅴ 시골와셔잇스니 간통(奸通)ᄒᆞ지 아니ᄒᆞ얏다는 증거(證據)가 어ᄃᆡ잇누」

「그럿케 말슴을ᄒᆞ시면 나는 무엇이라고 ᄃᆡ답ᄒᆞᆯ말이 업지요만은 김즁빅라ᄒᆞ는이ᄒᆞ고 약속ᄒᆞᆫ일도업고 만나쟈고ᄒᆞᆫ일도 업는ᄃᆡ 그런억지의말슴은 모도 그럴듯이 짐작ᄒᆞ고 말슴이지 그이는 우리가 여긔온후에 왓다는ᄃᆡ」

「가령 네말ᄃᆡ로 그러ᄒᆞ다 ᄒᆞᆯ지경이라도 그스ᄅᆞᆷ이 너를 무삼싸ᄃᆞᆨ으로 차즈온다말이야 응 글셰」

슌익는 그입쏠에 거멀못을 ᄒᆞᆫ겻ᄀᆞ치 다시는 입을열지아니ᄒᆞᆫ다 슈일이가 이와ᄀᆞᆺ치담ᄂᆡ고 ᄲᅮ지즈면 그녀즈는 반다시 허물을ᄂᆡ우치고 죄를즈복ᄒᆞ야 그몸은교스ᄒᆞ고 그목숨ᄭᅳ지라드 슈일의 지휘를밧고 억의지못ᄒᆞ라리고 밋엇더라가령 밋지는 아니ᄒᆞ드ᄅᆡ도 마음으로는 그옥이 그리ᄒᆞ기를 바라고잇셧더니엇지ᄒᆞ리오 슌익는 죠곰도 ᄂᆡ우치는 긔식은업고 산쳔은 변ᄒᆞᆯ지라도 그마음은 변ᄒᆞᆷ이업스리라 ᄒᆞ얏더니 ᄃᆡ산을 위ᄃᆡ타ᄒᆞ든마음이 이졔는 물우에거품이라 삽시(霎時)동안에 슌익의마음이 변ᄒᆞᆷ을봄이 슈일은 긔가질니여 말을이로지못ᄒᆞᆫ다

슌익는 나를져바렷고 나는 나의안히를 남의게 ᄲᅦ앗겻도다 ᄂᆡ의 목숨보다도

더욱 사랑ᄒᆞ든사ᄅᆞᆷ은 나를 원슈ᄀᆞᆺ치 미워ᄒᆞ는도다 한(恨)은 ᄲᅢ에사못치고 분(憤)은 가슴을 어이는것갓타야 거의 몸과 졔샹을 이져바린 슈일은 간부의 술을씹고 피를마시여 철텬지한을 품고즈ᄒᆞ는 고통(苦痛)에 견ᄃᆡ다못ᄒᆞ야 졍신업시 ᄃᆡ으로 벌덕잡바진다

슌익는 슈일의 ᄯᅡ에 쥬져안는양을보고 쌈짝놀ᄂᆡ여 황망이나아가셔 두손으로 수일의 고ᄀᆡ를밧드러 이르키니 수일은 바른팔은 ᄯᅡ홀집고 몸은 슌익의가슴에 의지ᄒᆞ얏는ᄃᆡ 눈은감앗스나 좌우로넘쳐 흐르는눈물은 혈식업는 양협을젹시이며 죠료ᄒᆞᆫ월광(月光)은 그얼골을 빗초인다

슌익는 수일의몸을 ᄃᆡ으로 제여안고 흔들면셔 말을ᄒᆞ고즈ᄒᆞ나 목이메여 소ᄅᆡ가 나오지아니ᄒᆞᆫ다 목소ᄅᆡ를 다시 가다듬으려ᄒᆞ면 가다듬을소록 소ᄅᆡ는점々늑기여진다

「이게웬일이오 여보금졔 별안간에 이게웬일이야요 져……졍……졍신을 ᄎᆞ리시오」

슈일은 간신히 손을드러 슌익의손을잡는다 슌익는 눈물에어리운 수일의얼골을드려다보며 수건을ᄂᆡ여 눈물을 씻겨쥬고잇다

「아ㅣ슌익 슌익와나와 이럿케흠쎄 잇는것도 오날져녁이 마지막이요 슌익가나를 이럿케 붓드러쥬기도 오날져녁이 마지막이요 ᄂᆡ가 슌익다려 말ᄒᆞ

는것도 오날져녁이 마지막이다 오날은 음력으로 삼월열나흔날이니 슌이가 자셔이 긔억ᄒᆞ여두어라 후ㅣ년면 이달이날이밤에는 리수일이가 어듸셔 이달을 다시볼는지 후년 이달이날……십년후 이달이날 한평싱두고셔 이날이날은 닉가잇지 아니흘터이다 죽드릭도 닉가이날은 아니이져바릴터이야 응 슌이 오날이 삼월열나흔날이야 릭년삼월십스일 져녁잇띡가되거든 닉눈에셔 나오는 피눈물로 이달을 흐리게ᄒᆞ야 노을터이니보아라 응 슌이 만일릭년이날에 달이……달이……이달이 흐리거든 리수일이가 너를원망ᄒᆞ고 어듸셔 오날져녁갓치 울고잇는줄노 아라다고」

슌이는 슈일을붓들고 몸부림을ᄒᆞ며 목을놋코뎨읍ᄒᆞ다

「그럿케공연히 남의심스만 도다놋치마오 나도 다 싱각흔일이 잇스니ᄭᅡ 분ᄒᆞ시드리도 다 용셔히쥬시오 나는 닉속에만두고 말못ᄒᆞᆯ일이 다만이잇스니ᄭᅡ 압으로는 다 말ᄒᆞᆯ슈업셔도 다만 흔마듸쉽게 말슴ᄒᆞᆯ것은 닉가 평싱을두고 죽는날ᄭᅡ지라도 당신을 이져바릴닉가 업셔요」

「응 그런말은 나는다듯기시려 이져바릴지 아니흔다는계집이 나를닉바리고 갈가」

「그리기에 누가 당신을바리고 간딧소」

「그러면 무엇이야 나를바리지 아니ᄒᆞᆫ사람이 다른듸로 시집을갈가 이못

된년ㅣ 그러면 너는 셔방을 둘식다리고 살자는말이냐」

「글세 넘머이리 ᄒᆞ시지말고 얼마동안만 닉가 ᄒᆞᆫ것을보시구료 보시면 알일을 닉가 이후ᄭᅡ지라도 당신을 이져바리지 아니ᄒᆞᆫ 증거를보여드릴터이닌」

「응 그만두어 어식ᄒᆞ닉ᄭᅡ 되지안케 싹며듸지도말고ㅣ비가곱파셔 몯을팔게되얏늬 무엇이부족ᄒᆞ야셔 김즁빅에게로 가랴고만ᄒᆞᆫ냐 셰샹에 알슈업는일이 만치만은 이와굿치 알기어려운일은 아마업슬가보다 너의집안으로 말ᄒᆞᆫ드릭도 굴머죽을 형셰는아니요 나도지금은 아모리 너의집에 붓쳐셔괴롬을세치지만은 금년에 학교를맛치고나면 나도 ᄒᆞᆫ스람 목구실은 ᄒᆞᆯ터인듸 무엇이 부족ᄒᆞ여셔 그여코 김즁빅를 ᄯᅡ라가려고ᄒᆞᆫ지 필연코 ᄯᅡ듸이잇는일이지 그럴닉가잇나

셔방가음이 부족ᄒᆞ야셔 그리ᄒᆞᆫ냐 부쟈집으로 시집이 가고십어셔 그리ᄒᆞᆫ냐 이두가지외에는 업슬터이니 ᄭᅡ듸이나 쟈셔이드러보자 이디경에 이르러셔 뎨면볼것도업고 붓그러울것도업스니 속에잇는ᄃᆡ로 썩썩말을ᄒᆞ야라 어려셔붓터 졍ᄒᆞ얏든셔방을 바리는염치 업는년이 이만말을 ᄃᆡ답ᄒᆞ지못ᄒᆞ고 쥬져ᄒᆞᆯ것이 무엇이야」

「닉가 다 잘못ᄒᆞ얏스니 용셔히쥬시구료」

「그러면 셔방감이 네마음에 부족ᄒᆞᆫ것이로구나」

「여보 무슨말삼을 그럿케ᄒᆞ오 그럿케나를 의심ᄒᆞᆯ터이면 ᄂᆡ가무슨짓을ᄒᆞ던지 발명은ᄒᆞ고날터이냐」

「셔방은 부족ᄒᆞ지안타 그리ᄂᆞᆫ말이지 그러면 김중ᄇᆡᄂᆞᆫ 부쟈니ᄭᅡ……올치 그러면 이번혼인은 돈 욕심에 된일이로구나 나ᄂᆞᆫ 돈이업슨니ᄭᅡ……부모의 말슴에 엇지ᄒᆞ지못ᄒᆞ야셔 혈슈업시 너도 허락ᄒᆞᆫ일ᄀᆞᆺ흐면 ᄂᆡ가 엇더ᄒᆞᆫ슈단이라도써셔 이혼인을 아니되게ᄒᆞᆯ 방법은 얼마든지잇스니ᄭᅡ 네마음만 엇더ᄒᆞᆫ지 알것ᄀᆞᆺ흐면 ᄂᆡ가 ᄂᆡ슈단것은 ᄒᆞᆫ번ᄡᅥ셔 볼더이나 슌ᄋᆡ의마음도 역시그리로갈 ᄉᆡᆼ각이간졀ᄒᆞ지」

슈일의눈은 일신의졍신을 모아셔 ᄃᆡ답ᄒᆞ기 어려워ᄒᆞᄂᆞᆫ 슌ᄋᆡ의얼골을 ᄯᅳ러지도록 바라본다 ᄒᆞᆫ거름을가고 두거름을가고 다셧거름 열거름을 것ᄂᆞᆫ동안ᄭᅡ지도 슌ᄋᆡᄂᆞᆫ ᄃᆡ답이업다 슈일은 하ᄂᆞᆯ을우러러 길게한숨짓ᄂᆞᆫ다

「응 알깃다 아라 네마음을 자셔이알깃셔」

슈일은 다시말ᄒᆞ야도 유ᄋᆡᄒᆞᆷ이 업스리라ᄒᆞ야 물ᄯᅳᆯ듯ᄒᆞᄂᆞᆫ 가ᄉᆞᆷ을 진졍치못ᄒᆞ며 강물을힝ᄒᆞ야 졍신업시 우둑커니 바라보고 잇다가 오히려 참지못ᄒᆞ고 무삼말을 ᄯᅩ ᄒᆞ려든지 슌ᄋᆡ를향ᄒᆞ야 도라보니 슌ᄋᆡᄂᆞᆫ 그엽혜잇지 아니ᄒᆞ고 륙칠간동안되ᄂᆞᆫ 탑(塔)아ᄅᆡ에 쥬져안자셔 몸은 탑에의지ᄒᆞ고 두손으로ᄂᆞᆫ 얼골

을가리고 늑거여가며 울고잇다

근심에 싸인몸은 달에빗쵸이며 바람에부니여 거의 ᄯᅳᆷ속에보ᄂᆞᆫ ᄉᆞᄅᆞᆷᄀᆞᆺᄒᆞᆫᄃᆡ잔잔이흐르ᄂᆞᆫ ᄃᆡ동강슈가 언덕에고요히 부ᄃᆡ치ᄂᆞᆫ 물ᄉᆞ결소ᄅᆡᄂᆞᆫ 다만 애원(哀怨)ᄒᆞᆫ심ᄉᆞ를 도을ᄲᅳᆫ이라 슈일은 분긔도 이졋스며 원망도업셔지고 잠시동안 턴디의ᄌᆞ연(天地之自然)과 그림ᄀᆞᆺᄒᆞᆫ 경치에마음을 ᄲᅥᆨ앗기고 황홀이셔셔 잇다

다시 이셰샹을 ᄉᆡᆼ각ᄒᆞᆷ애 가장 사랑ᄒᆞ던녀ᄌᆞ가 이졔ᄂᆞᆫ ᄂᆡ의안ᄒᆡ가 아니라ᄒᆞᄂᆞᆫ ᄉᆡᆼ각을ᄒᆞ니 지금셔셔잇ᄂᆞᆫ곳이 ᄯᅳᆷ이아닌가 의심ᄒᆞᆫ다

「아ㅣᄯᅳᆷ이로구나 ᄯᅳᆷ이야 길고긴 ᄯᅳᆷ을 ᄂᆡ가 ᄯᅮ엇구나」

슈일은 고ᄀᆡ를 드리우고 발긋향ᄒᆞᄂᆞᆫ 곳으로 거러가ᄂᆞᆫᄃᆡ 슌ᄋᆡᄂᆞᆫ 눈물을씨스며 슈일을향ᄒᆞ야 거러온다

「슌ᄋᆡ 무슨ᄭᅡ듸으로 울어 슌ᄋᆡᄂᆞᆫ 조금도 셔를일은 업ᄂᆞᆫᄃᆡ 아마 가짜 우름인게지」

「아……아……암 그럿치요가……가짜 우름이야요

ᄒᆞᄂᆞᆫ목소ᄅᆡᄂᆞᆫ 우름에셕기여 간신히 말을일운다

「이ᄋᆡ 슌ᄋᆡ야 ᄂᆡ가 너와ᄒᆞᆷᄭᅢ 어려셔붓터 오날날ᄭᅡ지 잘아날동안에 나ᄂᆞᆫ네마음도 내마음과 ᄀᆞᆺᄒᆞᆫ쥴노만알고 밋엇더니 지금보니ᄭᅡ 네마움속에도 욕심

이 가득ᄒᆞ게 그러안졋구나 돈이작ᄭᅳᆨ 드러안졋구나 아모리 이셰샹은 돈이라ᄒᆞ기로 너모도심ᄒᆞ다 그리도 네마음은 편ᄒᆞ냐 너는가서 이셰상에 호강도ᄒᆞ깃고 영화도밧깃다마은 돈흔아가 업는ᄉᆞᄃᆡ으로 네게소박마져 쏙겨가는 이놈의마음도 좀 싱각을ᄒᆞ야보아라 분ᄒᆞ다ᄒᆞᆯ는지 슬푸다ᄒᆞᆯ는지 원통ᄒᆞ다ᄒᆞᆯ는지 내마음ᄃᆡ로ᄒᆞ면 너ᄀᆞᆺ흔것은 이쟈리에서 흔칼로 질너쥭이고 ᄂᆞ도 그칼노 죽을마음이 불연듯ᄒᆞ다만은 그마암을 억지로억지로셔리여담고 제계집을 남에게쎗기이면셔 감아니 보고잇는놈의 마음도좀 싱각ᄒᆞ야라 그마음이 엇더ᄒᆞ깃늬 엇더ᄒᆞᆯ는여 너만 잘되면 남은 아무럿케되드릭도 상관이업늬 도ᄃᆡ체 리슈일이라ᄒᆞ는놈은 네게 엇더케되는 ᄉᆞ름이냐 흔집안에 셔잘아날제 무삼약죠로 지내여왓는지 너는 모르는냐 나는 아모리 심ᄐᆡᆨ(沈澤)의집에 신셰지고잇는 비러방일지라도 네게ᄃᆡᄒᆞ야셔는 남편이아니냐 그런데 너는 명식이 남편을 흔 놀임감으로알고 잇셧느냐 엇지ᄒᆞ면 헌신버셔 버리듯ᄒᆞ느냐 평일에 네의ᄒᆞ는모양이 일샹 셔허ᄒᆞ기에 이상이알랏더니 네마음이 본ᄃᆡ붓터 그러ᄒᆞ얏든줄은 참 몰낫고나 진정으로 향ᄒᆞ는정은 업고 잠시간 ᄂᆞ는 네게 놀님가머리가 되얏셧구나 이못싱긴놈은 그런줄은 아지못ᄒᆞ구셔 내몸보다 네몸을 더 ᄉᆞ랑ᄒᆞ고 너흔ᄉᆞ름의게는 이셰샹에 다시 락이 업는줄노알고 잇셧더니 이럿틋 네몸을 아라주는 리슈일이를 엇지ᄒᆞ야

셔 너는 헌신ᄀᆞᆺ치 ᄂᆡ여바리ᄂᆞ냐

돈흔가지로 말을ᄒᆞ면 ᄂᆞᄒᆞ고 김즁빈ᄒᆞ고 당초에 비흘수가업지 김즁빈는유명흔 지산가요 ᄂᆞ는 미실미가흔 일ᄀᆡ셔싱(一介書生)이로구나 응그러나여보소 순이 너도학교에 다녀보앗고 ᄂᆞ히지금 지각이 잇슬ᄂᆞ히니ᄌᆞ셔이 좀 싱각ᄒᆞ야보게 ᄉᆞ름의 힝복(幸福)이라 ᄒᆞ는것은 결단코 돈으로는 사지못ᄒᆞ는것이라 네ᄉᆞ름의팔ᄌᆞ와 돈은 짠물건이야 돈만만흐면 팔ᄌᆞ가조흔줄아는가 사름이 이셰상에셔 살ᄭᅳᆨ에 졔일로 구흘일은 집안이 평안히야지 ᄒᆞ는것인ᄃᆡ 집안이 평안ᄒᆞ려면 엇더케히야 ᄒᆞ는냐 다른것이 아니라 부부가 셔로 깁히 ᄉᆞ랑ᄒᆞ는것이 졔일인ᄃᆡ 슌이를 깁히사랑ᄒᆞ기는 김즁빈가 빅이오드릭도내마음에 십분일을 ᄯᅡ라오지못ᄒᆞ리라 만일졔가 돈으로 쟈랑을ᄒᆞ면 그것은 내가 ᄉᆞᆲ에도 ᄯᅡ라가지 못ᄒᆞ깃지만은 나는졍으로 사랑흘수가잇늬 부부간에 힝복(幸福)이라ᄒᆞ는것은 젼혀 의졍(愛情)에셔 나오는것인ᄃᆡ 이의졍이업스면 부부라고 말흘것이잇나

ᄂᆡ몸보다도 슌이를 더 사랑ᄒᆞ는 리슈일이를 ᄂᆡ여바리고 부부간에 힝복은 고ᄉᆞᄒᆞ고 도로혀 히롭게되기쉬운 지산(財産)을 목젹ᄒᆞ야가지고 결혼을ᄒᆞ려ᄒᆞ니 여보소 슌이 그마음이 무슨마음인가 의달나 못견ᄃᆡ깃네 그러나 돈이라ᄒᆞ는것은 원ᄅᆡ붓터 ᄉᆞ름의마음을 미혹(迷惑)케 ᄒᆞ는물건이

라 영웅호걸(英雄豪傑)과 현인군ᄌᆞ(賢人君子)라도 돈에당ᄒᆞ야셔는 항용비루(卑陋)ᄒᆞᆫ 힝동(行動)을 ᄒᆞᄂᆞᆫᄉᆞᄅᆞᆷ이 져지아니ᄒᆞ니ᄭᅡ 지금 슌익가 잠간 마음이 변ᄒᆞ야셔 욕심ᄂᆡ기도 쉬운일이야 그러니ᄭᅡ ᄂᆡ가깁히 ᄎᆡᆨ망ᄒᆞᄂᆞᆫ것은 아니로되 단지ᄒᆞᆫ번만 다시 잘ᄉᆡᆼ각을 ᄒᆞ야보라 ᄒᆞᄂᆞᆫ말일세……그돈이 김즁ᄇᆡ집에 지산이 김즁ᄇᆡ와 슌익ᄉᆞ이에 얼마나 효력이날는지 좀 ᄉᆡᆼ각을 야보란말이야

참시가 쏠을쪼아먹는ᄃᆡ 간신이 열알이나 스무알이면 족ᄒᆞ지 셤으로 노앗다 ᄒᆞ드릭도 한입에 다먹을슈는 업는법이라 아모리 ᄂᆡ가 못ᄉᆡᆼ겻기로 열알이나 스무알쏠이 업셔셔 너ᄒᆞᆫ아 굼겨둘놈은아니다 만일잘못되야셔 열알이나 스무알쏠을 변통을 못ᄒᆞᆫ다ᄒᆞᆯ지경이면 그ᄯᅢ는 나는 먹지아니ᄒᆞᆯ지언뎡 너는 ᄇᆡ곱푸게 ᄂᆡ바려두지 아니ᄒᆞᆯ터이다 응 슌익 ᄂᆞᄂᆞᆫ……ᄂᆞᄂᆞᆫ 이럿틋 너를 ᄉᆡᆼ각ᄒᆞᄂᆞᆫᄃᆡ……」

슈일은 흐르는 눈물을 씻는다

네가 김즁ᄇᆡ의게로 가면 돈이만으니ᄭᅡ 잘먹고 잘입고 살줄은안다 그럿치만은 김즁ᄇᆡ의집 지산은 다만 너ᄒᆞᄂᆞᆫ를 위ᄒᆞ야셔 모은것이아니다 그것을ᄉᆡᆼ각지못ᄒᆞ야셔 엇지ᄒᆞ나 셔로 이졍이업는 부부간에 잘먹고 잘입ᄂᆞᆫ것은 무엇이냐 이셰샹에는 조흔인력거나 마차를타고 긔구가 놀납ᄒᆞ게단이ᄂᆞᆫ ᄉᆞᄅᆞᆷ

도 얼골에는 슈심이 ᄑᆡ일날이 업ᄂᆞᆫᄉᆞᄅᆞᆷ도잇고 ᄌᆞ긔의쳐자를 인력거에ᄐᆡ우고 ᄌᆞ긔가친히 ᄉᆞ을고 화류ᄒᆞ러다니ᄂᆞᆫ 인력거군도 잇ᄂᆞᆫ법이야 김즁ᄇᆡ의집으로가면 돈잇ᄂᆞᆫᄉᆞᄅᆞᆷ의 집안이라 ᄌᆞ연이 변화ᄒᆞ야 괴로운일도만코 근심되ᄂᆞᆫ일도 만을터이니 그집안에 드러가셔 마음을놋치못ᄒᆞ면셔 ᄉᆞ랑ᄒᆞ야쥬지도 아니ᄒᆞᄂᆞᆫ남편ᄒᆞ고 무슨ᄌᆞ미로 살터이냐 그고ᄉᆡᆼ을ᄒᆞ고라도 참고잇스면ᄂᆞ죵에는 그지산이 모다 네게될줄안ᄂᆞ냐 지산가에 아모ᄀᆡ딕 앗씨라고ᄒᆞ면 남드리모도 앙시ᄒᆞᄂᆞᆫ지 모르깃다만은 네가먹ᄂᆞᆫ것은 지금말과ᄀᆞᆺ치 참시가 쏠을 열알이나 스무알먹는ᄃᆡ셔 지ᄂᆡ지못ᄒᆞᆯ것이오 가령 그지산이 모다네것이된다 ᄒᆞ드릭도 계집의몸으로 멧십만원이나 멧빅만원이잇스면 무엇에 쓸터이냐 멧십만원돈을 녀편네손으로 뎍당ᄒᆞ게 쓸ᄉᆞᄅᆞᆫ냐 참시다려 ᄒᆞᆫ셤슬을ᄒᆞᆫ셰번에 먹으라ᄒᆞᄂᆞᆫ말과 맛찬가지지

녀편네에 팔ᄌᆞᄂᆞᆫ 남편에게 ᄆᆡ엿다ᄒᆞᄂᆞᆫ 말이잇ᄂᆞᆫᄃᆡ 그 업편네의 남편되ᄂᆞᆫ ᄉᆞ람이 멧빅만원의 지산이 잇다ᄒᆞ기로 남편이 남편답지못ᄒᆞ면 그녀편네의 팔ᄌᆞᄂᆞᆫ 오히려 제인력거에 ᄐᆡ여가지고 ᄉᆞᆺ구경단이ᄂᆞᆫ 인력거군의 계접된ᄌᆞ만못ᄒᆞ지안으냐

ᄂᆡ가 드른즉 김즁ᄇᆡ의 어른은 여긔져긔다가 쳡을 ᄉᆞ오인식두고 도라단인다ᄒᆞ니 돈량이나 잇ᄂᆞᆫᄉᆞᄅᆞᆷ드른 모다 그짓을ᄒᆞ고 졍말안히라ᄒᆞᄂᆞᆫ위인은 볼

모로 명석이 안히라고ᄒᆞ엿지 실상은 소박덕이 맛찬가지야 소박은 마져셔 남편의게 ᄉᆞ랑은 밧지못ᄒᆞ고 ᄒᆞᆫ편구셕에 잇드릭도 ᄌᆞ긔의직칙은 죵ᄒᆞ고 고싱군심으로 이졔상을 맛치고마니 너도 김즁빈의게로가면 쳐음 얼마동안은 알슈업다마은 그ᄉᆞ랑이 오릭가지못ᄒᆞ리라 돈이잇스니ᄭᅡ 다른ᄒᆞ고십흔 짓은다ᄒᆞ고 그리다가 다른ᄃᆡ로 마음이 솔이면 너도역시 ᄒᆞᆫ 주쳬군이될터이니 그ᄯᅢ가되면 네마음이 엇더ᄒᆞᆯ듯ᄒᆞ냐 그근심을 김가의집 지산으로 능히 업시ᄒᆞ야 쥴듯ᄒᆞ냐 집에돈만 만히잇스면 남편의게 소박을맛고 뒤ᄉᆞ방마노라 노릇을ᄒᆞ야도 너는 마음에 질겁깃ᄂᆡ 마음에조아 ᄂᆡ가 지금 ᄒᆞᄂᆞᆫ말은 너를 ᄂᆡ가 남의게 쎄앗기니ᄭᅡ 분히셔 ᄒᆞᄂᆞᆫ말이아니라 십여년을갓치 쟈라ᄂᆞᆫ졍니로 말ᄒᆞ기로 이ᄯᅢ에 발른말로 권고ᄒᆞᆫ마듸를 엇지 아니ᄒᆞ깃ᄂᆡ 네가 삼년을 치다 지ᄂᆡ지못ᄒᆞ야셔 후회ᄒᆞᆯ날이 잇슬줄을 ᄂᆡ가 확실이안다 네마음이 변ᄒᆞᆫ것으로보면 분ᄒᆞ기가 한이업지만은 셔로지ᄂᆡ든 졍니로말ᄒᆞ야도 너모 가엽셔셔 ᄂᆡ가 진졍으로 ᄒᆞᄂᆞᆫ말이다 네마음에 나는 남편감이 부족ᄒᆞ고 김즁빈ᄂᆞᆫ 위인이 얌젼ᄒᆞ야셔 ᄉᆞᄅᆞᆷ을바라고 가려ᄒᆞᄂᆞᆫ것갓흐면 ᄂᆡ몸은 엇지ᄒᆞ얏든지 원통은ᄒᆞ드릭도 네몸 ᄒᆞᆫ아만 위ᄒᆞ야셔라도 ᄂᆡ가 아모말ᄒᆞ지안코 가셔잘살나고 보ᄂᆡ터이다만은 너는 ᄉᆞᄅᆞᆷ을보고 남편을 구ᄒᆞᄂᆞᆫ것이아니라 저물을보고 남편을구ᄒᆞ니 그것이 무ᄉᆞᆷ

지각업ᄂᆞᆫ 싱각인지 ᄉᆞ랑이업ᄂᆞᆫ 내외간은 후일에 반다시 후회ᄒᆞᄂᆞ니라 네일평싱에 고락(苦樂)은 오날밤이쟈리에셔 네 싱각ᄒᆞᆫ아에 달니엿다 슌익슌익 너도네몸을 위ᄒᆞ랴거든 ᄒᆞᆫ번다시 싱각ᄒᆞ야 보아라

나도 멧칠아니면 학교를 졸업ᄒᆞᆯ터이오 학교를 졸업ᄒᆞ면 동경으로 유학도 갈터이니 지금붓터 이ᄉᆞᆷ년만지내면 ᄂᆞ도 내힘으로벌어셔 김즁빈지산은 불업지아니ᄒᆞ게 살터이니 그ᄯᅢ에는 우리가 단란(團欒)ᄒᆞᆫ 가졍을 만드러셔 평싱을지ᄂᆡ면 그위에더 조흘일이 어ᄃᆡ잇ᄂᆡ 어려슬ᄯᅢ붓터 굿게ᄆᆡ진 언약을 오날와셔는 이져바려ᄂᆞ냐 리슈일이를 이럿케 이져바린단말이냐 젼에 ᄂᆞ를 ᄉᆞ랑ᄒᆞ든마음이 이럿케도 마졍ᄒᆞ단말이냐」

슈일이는 슌익의 일시 미혹(迷惑)ᄒᆞᆫ 마음을 다시 도르키고ᄌᆞᄒᆞ야 슌익의 허리를 세여안고 월ᄒᆞ에 빗최이는 빅셜ᄀᆞᆺ흔 목뒤에 ᄯᅳ거운눈물이 ᄒᆞᆫ방울 두방울 을ᄭᅮᆨ々ᄃᆞᆺ는ᄃᆡ 몸은 바롬압헤 나무임시갓치 벌벌덜닌다 슌익도 슈일의 옷자락을 더위잡고 머리는 슈일의 가ᄉᆞᆷ에 안기여 늑기고잇다 슈일은눈물에 져진얼골로 지향업시 즁텬을우러러 한숨짓는다

「아ㅣ나는 엇지ᄒᆞ면 조탄말이오 여보시오 ᄂᆡ가만일 갈거ᄀᆞᆺ흐면 당신은엇지ᄒᆞ실터이오 그말ᄉᆞᆷ을 좀 ᄒᆞ여주시구려」

그말ᄒᆞᆫ마듸에 슈일은 슌익의몸을 두손으로 ᄯᅥ메질치며

「그러니싸 아모리ᄒᆞ야도 너는김즁빈를 좃차가긧다 ᄒᆞ는말이로구나 잇도록 루루이 알아듯도록 말을ᄒᆞ야도 듯지를안는다 ᄒᆞ는말이지 아모리 못싱긴년 이기로 이년 ᄂᆡ가 너갓흔간부(姦婦)ᄒᆞ고 말ᄒᆞ는ᄂᆡ가 도로혀그르다」

ᄒᆞ며 슌일이는 다리를드러 슌익의 허리를 거더찬다 슌익는 싸우에 모흐로쓰러져셔 다시 이러날싱각도 아니ᄒᆞ고 모ᄅᆡ우에 업ᄃᆡ여울고잇다 슌일은 업드러져셔잇는 슌익의모양을보고 분긔텅즁흔목ᄌᆞ 로ᄂᆞ려다보며

「슌익야 이년 슌익야이년 너의마음이 이럿케변흔싸둙으로 리슈일이라ᄒᆞ는 놈은 낙심되는쏫헤 발광ᄒᆞ야 일평싱을 그릇치는구나

학문이 다 무엇이냐 오날져녁으로 마지막이다 이한으로ᄒᆞ야셔 리수일이흔 놈은 사라셔라도 아귀가되야셔 너ᄀᆞᆺ흔년의 고기를씹고 피를마실터이다 김……김즁빈부인 다시는 평싱에 너와나와 보지를 아니흘터이니 얼골을드려셔 아즉 사름의 마음을가지고 잇는 리수일의 얼골을 흔번ᄌᆞ셔이 보아두어라

십여년동안을두고 큰은혜를밧은 심ᄐᆡ시 ᄂᆡ외분씨 잠간이라도 뵈옵고 그간에 은혜를 감ᄉᆞᄒᆞ다는 말이나 엿줄터이나 그럿치못흔 ᄉᆞ단이잇셔셔 리수일이는 길게 하즉을ᄒᆞ니 안령이 ᄀᆡᆸ시사고 네가 두분씨 쟐 말ᄉᆞᆷ을엿주어라 만일 리수일이는 어ᄃᆡ로ᄀᆞᆺ느냐고 물으시거든 그 못나고 병신ᄀᆞᆺ흔놈은 ᄉᆞᆷ

월십ᄉᆞ일밤에 별안간에 밋쳐셔 ᄃᆡ동강 부벽루아래에셔 부지거쳐가 되엿다고……」

슌익는 약흔몸을 간신이 일고ᄌᆞᄒᆞ나 시진흔근력이 몸을익이지못ᄒᆞ고 다시쓰러지는것을 간신히 두팔을썻치여 슌일의다리를 붓잡고 말소래인지 우름소래인지 분간흘수업다

여보 가……가……가면 어ᄃᆡ로 가긧다고 그리ᄒᆞ시오」

그때에 눈ᄉᆞ결갓흔 팔에는 피가 뚝々듯는다 슌일은 팔에상쳐낫슴을보고

「응 팔을 닷쳣구나」

「그ᄉᆞ짓것은 조곰닷쳣셔도 관게치안이ᄒᆡ요 그러ᄂᆞ 이밤에 어ᄃᆡ를 간다고 그리시오 오날은 ᄭᅳᆨ 흘말이잇스니 갓치쥬인잡은ᄃᆡ로 갓치나려가십시다 졔발덕분에」

「이약이ᄀᆞ잇스면 예셔ᄒᆞ지」

「예셔는 허지못ᄒᆡ요」

「예셔못흘말을 잇다는 엇지ᄒᆞ누 공연이 그리ᄒᆞ지말고 이 붓들고잇는 팔이ᄂᆞ떼여」

나는 안이노흘터이야」

「응 공연이 말을아니드르면 ᄯᅩ 이발길노 찰터이야」

「채여도 관게치안아요」

슈일은 긔운을다ᄒᆞ야 두팔을 쌱리치니 슌이는 다시 싸에업더진다

「여보 여보 잠간만……」

슈일이는 발셔 멋간동안을 ᄂᆞ아갓는지라 슌이는 쥭을힘을다ᄒᆞ야 몸을일고자ᄒᆞ나 젼신이 결니여 얼푸시 이러나지못ᄒᆞ고 목소리만ᄂᆡ여

「여보 그러면 다시 ᄂᆡ가 붓잡지는 아니흘터이니 ᄂᆡ말ᄒᆞᆫ마ᄃᆡ만 ᄃᆞᆺ고가시요」

ᄃᆡᄃᆡ여 다시 업더져 체읍ᄒᆞ는슌이는 좃쳐갈근력도업고 다만 우름에 셕긴목소래로 슈일을부르고 잇슬ᄲᅮᆫ이라 월하에 졈졈머러가는 리수일(李守一)의그림ᄌᆞ는 발셔 소나무ᄉᆞ이로좃ᄎᆞ 을밀ᄃᆡ(乙密臺)아래로 다름질ᄒᆞ야 올나간다 슌이는 더욱슈일을 부르기를 마지아니ᄒᆞᆫ다 슈일의 거문그림ᄌᆞ는 을밀ᄃᆡ우에셔셔 아래를 ᄂᆞ려다보는ᄃᆞᆺᄒᆞ다

슌이는 다시 소래를 놉히ᄒᆞ야 슈일의 일홈을부른다 그러나 ᄃᆡ답이업다 슌이는 몸을 반쯤일어ᄂᆞ 목을길게ᄒᆞ야 ᄉᆞ방을 살피여보나 거문그림ᄌᆞ도 살아진것갓치 업셔지고 다만 젹젹ᄒᆞᆫ공산에 소나무그림ᄌᆞ만 우ᄃᆞᆨ우ᄃᆞᆨ셔셔잇고 ᄃᆡ동강(大同江)변에 흐르는 물결소ᄅᆡ만 슬푸게들니는ᄃᆡ 삼월십ᄉᆞ일밤 교교ᄒᆞᆫ달빗은 근심을 가득이 먹음엇더라

슌이는 졔번지 슈일의일홈을 브르나 그소ᄅᆡ는 산에울이여 다시슌이의귀에 들닐ᄲᅮᆫ이오 그소ᄅᆡ도 굿치ᄆᆡ 다시 부벽루(浮碧樓)는 젹젹ᄒᆞᆫᄃᆡ 수상(水上)으로좃차 ᄂᆞ려오는 일엽편쥬는 노졋는소래 씨걱씨걱ᄒᆞ더니 반공에 소ᄉᆞᄂᆞ오는 수심가(愁心歌)ᄒᆞᆫ곡죠라

「부벽루야 너잘잇거라 너와나와 오날밤이 영별이로구나

모란봉이야 변ᄒᆞ야셔 ᄃᆡ동강수될지라도 너와나는 변치마ᄌᆞ 밍셰ᄒᆞ얏더니

졔ᄃᆡ이야 이럿듯 무졍ᄒᆞ단말이냐」

졔구장 남ᄃᆡ문졍거장

남ᄃᆡ문졍거쟝 ᄒᆞᆫ가온ᄃᆡ기동에 걸니여잇는 괘죵은 오후네시를 가르쳣더라 부산으로향ᄒᆞ는 야향렬차(夜行列車)는 임의차실마다 승ᄀᆡᆨ을가득히 실엇는ᄃᆡ괴관차(機關車)는 거문연긔를 토ᄒᆞ며 ᄀᆡᆨ차화차(客車貨車)를 합ᄒᆞ야 수십여채를 연결ᄒᆞ얏는ᄃᆡ 만리지(萬里峴)뒤ᄉᆞ산으로 넘어가는 셕양에 불근히ᄉᆞ발은 유리챵에 영롱이빗쵸여 화염(火炎)이 이러ᄂᆞ는ᄃᆞᆺᄒᆞ며 이삼인의 역부(驛夫)와차쟝(車掌)은 아ᄅᆡ위로 왕래ᄒᆞ며 ᄃᆡ써러져잇는 승ᄀᆡᆨ을 어셔타라 지촉ᄒᆞ는소래도 귀밧그로ᄃᆞᆺ고 ᄃᆡ답보(大踏步)로 완완히 나아가는 셔양ᄉᆞ람은 ᄆᆡᆨ쥬광고에 그림갓흔 ᄀᆞᆫ비를압흐로 내여밀고 ᄒᆞᆫ손에는 손가방을들고 ᄯᅩᄒᆞᆫ손으로는 치마ᄃᆡ人자락을 치켜잡고가는 셔양부인과 ᄒᆞᆫ가지로 억ᄀᆡ를 ᄂᆞ라니ᄒᆞ야

우리탈자리야 셜마업스랴ᄒᆞ는 모양으로 ᄊᆞᆫ불ᄊᆞᆫ불ᄒᆞᆫ말로 무엇이라 짓거리며 지내여간후 뒤밋쳐 시골녀ᄌᆞᄒᆞᆫ스름은 긔ᄎᆞ를놋칠가 겁이나셔 급ᄒᆞᆫ거롬으로 궁둥이만 휘두루면셔 머리우에는 보짐을이고 등에는 솜스셰먹은 어린아히를 업고 어ᄃᆡ로을으면조흘는지몬나 창황망조ᄒᆞ다가 차쟝의 인도를입어 자리를 뎡ᄒᆞᆫ후에야 비로소 겁ᄂᆞ든가삼을 진졍ᄒᆞ얏는ᄃᆡ 그뒤으로 오십여세나 되여보이는 시골로인 ᄒᆞᆫ스름도 코ᄉᆞ물흘니는 어린아히를다리고 역시 울울곳을아지못ᄒᆞ야 우흐로갓다 아래로갓다 ᄒᆞ는것을 역부의게살이여 차안으로 드려보ᄂᆡ고 밧그로 문을탁닷치ᄆᆡ 두루막이자락이 문에세여 압흐로가려면 뒤에셔잡아다리고 또 가려면 잡아다리는고로 로인은 겁이나셔 고ᄀᆡ를 좌우로돌니여보는모양은 아즉도 경셩을 멀니써나지아니ᄒᆞ얏스되 임의 여힝(旅行)의 곤난ᄒᆞᆷ을 ᄭᆡ다랏더라

다셧스름이 함ᄭᅴ모혀 자리를졍ᄒᆞᆫ 쇼년신ᄉᆞ드른 즁등실(中等室)ᄒᆞᆫ편에잇는ᄃᆡ모다 거러안잣고 그즁에 멀니가랴고 힝리(行李)를 차린신ᄉᆞ는 ᄒᆞᆫ스람뿐이오 그외에 네스름은 모다 ᄒᆞᆫ스름을 젼송코ᄌᆞ영등포ᄭᆞ지라도 가는모양이라 두루막이임은 스람도잇고 양복ᄒᆞᆫ스람도잇스며 그즁에ᄒᆞᆫ스름만 후록고투를 임엇는ᄃᆡ 엽헤노엿던 가방과 단장우산등물을 멀니웃탁자에언ᄭᅳᆫ 다시거러 안더니 창문으로 고ᄀᆡ를ᄂᆡ여미러 좌우를 이윽이 ᄂᆡ여다보더니 다시 쏙빗갓치 ᄃᆡ게

ᄀᆡ인ᄀᆞ믈하날을 치여다보며

「어ㅣ참 일긔도좃타 이런때는 밤에라는긔ᄎᆞ가 더 운치가잇셔」

「비ᄒᆞᆫ줄기 ᄊᆞᆫ다지는것도 ᄒᆞᆫ운치가될지 모로지 그럿치아니ᄒᆞᆫ가 응 조병권」

옥식면쥬 두루막이입은스름은 이럿듯 말을ᄒᆞ고 빙그레웃는다 「조병권(曹秉權)이라 ᄒᆞ는스름은 거문모ᄉᆞ 두루막이를입고 코아래에는 팔ᄌᆞ형(八字形)으로 슈염을 쩻쳔스름이라 조병권이가 밋쳐 ᄃᆡ답지아니ᄒᆞ야 양복임은 신쟝우(申章雨)라 ᄒᆞ는스름은 졀문ᄂᆞ히로 목소래는 심히 로셩ᄒᆞ얏는ᄃᆡ 로셩ᄒᆞᆫ목소래ᄀᆞ아니라 원래목소래가 잠기엿더라 임박게간신히 ᄂᆞ오는 쉬인목소래로

「여보게 조병권 비ᄒᆞᆫ줄기가 오는것도 운치라지 그ᄑᆡ게를 ᄒᆞ야ᄀᆞ지고 무슨 지져귀를 ᄯᅩ ᄒᆞ려고그려나」

아닐세 여보게 조병권 이속은 내가 유리붓치고 드려다보는듯이 알고잇네

「여보게 자네들른 공연히 남을ᄀᆞ지고 별명을 짓지말게」

ᄒᆞ며 조병권은 번명ᄒᆞ드시 말을ᄒᆞᆫ다

지금ᄭᆞ지 교의에 걸이안쟈 묵묵히잇던 힌옥양목 두루막이입은 신ᄉᆞ는 다시 쟈리를 곳쳐안지며

「여보게 신(申)자네ᄒᆞ고 나ᄒᆞ고는 오늘 빅군(白君)을 젼송오는것이 못되고 조병권이ᄒᆞ고 유정상(劉正相)이 두사름을 바려다쥬는심ᄲᅮᆷ 되얏네 져사

름드른 운힝지뎜으로 영등포가셔 잇스니ᄭᅡ 거긔아마 소일거리로 식다른쳔구가 잇나부데 그래셔 요젼붓터 ᄂᆞ다러도 흔번놀너가쟈고 ᄒᆞ더니 오날은 겸두겸두히셔 우리가 ᄉᆞᆯ녀오는모양이 아닌가」

「그것은 다 무슨소리들인가 자네드른 져ᄉᆞ름들의게 속아오는니 ᄉᆞᆯ녀오는니ᄒᆞ면 나는 쟈네들 네ᄉᆞ름의게 팔여가는 셰음일세그려 그리게 ᄂᆡ가 앗가붓터 영등포ᄭᅡ지 멀니 젼별ᄒᆞᆯ것이업다고 ᄒᆞ야도 지셩것갓치 간다ᄒᆞ기에 ᄃᆡ단이 불안스럽고 고맙게 알앗더니 인졔보니ᄭᅡ 나를 젼송ᄒᆞᆫ다는것은 ᄒᆞᆫ빙쟈ᄉᆞ거리가 된것아닌가 예ㅣ기 이ᄉᆞ름들……젼에 우리가 학교에 함ᄭᅴ잇슬ᄯᅢ붓터도 쟈네들른 그런짓을 더러ᄒᆞ더니 이후에도 나는 쟈네들을위ᄒᆞ야셔 큰걱졍일셰 ᄉᆞᄂᆞ희가 혹시잇는일이지마은 아못조록 삼가ᄒᆞ게」

이와갓치 뎜잔히 츙고ᄒᆞ는사름은 지금으로붓터 ᄉᆞ년젼에 리슈일(李守一)이ᄀᆞ친형(親兄)과갓치알고 한학교 한학년에 다니던 빅락관(白樂觀)이라 빅락관은 경셩셔 학교를 맛친후에 관비유학성(官費留學生)으로 일본동경(日本東京)에 건너가셔 명치ᄃᆡ학법과(明治大學法科)를 졸업ᄒᆞ고 도라온후 즉시 경상남도진쥬군슈(慶尙南道晋州郡守)를 피임ᄒᆞ야 이날 부임(赴任)ᄒᆞ는 길이라

빅락관은 그 년령(年齡)과 원ᄃᆡ(遠志)와 셩실(誠實)ᄒᆞᆷ은 가위 당시군ᄌᆞ라일

ᄭᅥ를지라 그런고로 젼일학교에 잇슬ᄯᅢ에도 여러학성중에 로실(老實)ᄒᆞᆫ 쳥년으로 공경을밧던터이라

「이번에 내가 ᄯᅥ나가면 쟈네들을 죵죵만나기는 어려운일이니 아모죠록 자긔의몸을 자긔가 도라보아셔 낭픽스러운소문이 내귀에 들니지안토록 ᄒᆞ야쥬게」

네ᄉᆞ름은 한참동안을 자미잇게 짓거리다가 이말ᄒᆞᆫ마ᄃᆡ에 입을봉ᄒᆞᆫ듯이 먹먹ᄒᆞᆫᄃᆡ 다만 자조피우는 권연연긔만 살닷듯ᄒᆞ는 긔차의 챵문으로좃ᄎᆞ 바람에 불니여 날아가는 구름갓치 한강텰교(漢江鐵橋)우에셔 흣으러질ᄲᅮᆫ이라

유졍상이라 ᄒᆞ는사름은 머리를 좌우로 ᄂᆡ여져흐며

「그런것이아니라 악가 남ᄃᆡ문졍거쟝에셔 항상 내가유의ᄒᆞ던 녀편네 빗쟝이로 유명ᄒᆞᆫ미인을 만나보앗는ᄃᆡ 그계집은 언제보던지 입부어 오날은더구나 단쟝을잘ᄒᆞ고 발오 외교관의 귀부인이나 되는듯이 양복을ᄲᅧᆯ써리고 나왓데그려 어ᄃᆡ무슨 죠흔먹을자비가 ᄯᅩ싱겻는지 그년의게 물ᄂᆡ엇다가는 참 견ᄃᆡ지못ᄒᆞ지 그년의 돈을쓰고야 동두텰신이면 견ᄃᆡ여ᄂᆡᆯ슈잇나

옥양목두루막이 입은ᄉᆞ름은

「허허 그것좀 보앗드면 죠흔것을 못보앗네그려 나도 그계집의 일홈은 임의드른지가 오ᄅᆡ되엿스나

ᄒᆞ며 말을 연속ᄒᆞ려ᄒᆞᄂᆞᆫ것을 조병권은 가로쳐여말을ᄒᆞᆫ다

「올치올치 우리가학교에 단일ᄯᅴ에 안슉(安淑)이가 ᄃᆡ학당ᄒᆞᆫ것도 그계집때문이아닌가 그계집이 아조부ᄌᆞ라지 몸에도 모도 금투셩이를ᄒᆞ고 단인다지 얼골도 어엽부거니와 빗노이에는 아조 이골이나셔 쵀권독촉ᄒᆞᄂᆞᆫ데는 물이 못난다는걸 여보게 유졍상이 ᄌᆞ네도그내력을 알면셔 위ᄃᆡᄒᆞ게 그계집의게 달녀들녀고 그리ᄒᆞ나

「아니야 그계집은 그럿치아니ᄒᆞᆫᄃᆡ 뒤에셔방이잇든지 누가잇셔셔 은근이 작고 ᄉᆡᆨ득여 쥬ᄂᆞᆫ모양이데」

ᄒᆞ며 신쟝우(申章雨)라 ᄒᆞᄂᆞᆫ ᄉᆞ름은 이럿흣말을ᄒᆞᆫ다 빅락관(白樂觀)은 목묵히안자셔 여러사람의 ᄒᆞᄂᆞᆫ말을 온당치못ᄒᆞ야 녁이ᄂᆞᆫ모양인ᄃᆡ 옥양목두루막이입은ᄉᆞ름은 교의에 벌덕이러나안지며

「여보게 그계집의 내력은 ᄌᆞ네들은 쟈셔이 아즉모르네 그계집의 내력을말ᄒᆞᆯ것ᄀᆞᆺᄒᆞ면 ᄒᆞᆯ늉ᄒᆞᆫ소셜 ᄒᆞᆫ아보ᄂᆞᆫ셰음이지 그계집은 셔방이잇ᄂᆞᆫ니 셔방도 졈지안코 ᄂᆞᆯ근것인ᄃᆡ 이젼에 우리가 학교에셔 공부ᄒᆞᆯ때붓터 무젼ᄃᆡ금업(無典貸金業)으로 유명ᄒᆞᆫ 셔양ᄉᆞᄅᆞᆷ의 ᄶᅴ레만이라ᄂᆞᆫ놈이업셧나 그셔양ᄉᆞᄅᆞᆷ이 그계집의 셔방이라네 그놈이 본래 빈손으로 죠션나왓다가 그못된짓을ᄒᆞ야셔 지금은 루거만원의 재산을모앗ᄂᆞᆫᄃᆡ 남의못ᄒᆞᆯ일도 만이ᄒᆞ고 그중에

도 큰 음물(淫物)이라 빗바드러단이다가ᄂᆞᆫ 남의집유부녀 쳐녀ᄒᆞᆯ것업시 함부로 통간을ᄒᆞ야셔 그놈으로ᄒᆞ야셔 몸을바린 녀편네가 젹지아니ᄒᆞᆫᄃᆡ 그계집도 그 ᄶᅴ레만이손에 걸니엿드라네 져의부모ᄂᆞᆫ 본ᄃᆡ가문이 파이상업지안은 ᄉᆞᄅᆞᆷ이나 구차ᄒᆞ야셔 혈슈업시 그셔양놈의 돈을씻든가보데 그래셔 자연이왕ᄅᆡ가되니ᄭᅡ 그음특ᄒᆞᆫ놈이 어내결에 그집ᄯᅳᆯ의 잘싱긴얼골을 보고셔 욕심이 불갓치나셔 못된마음을 먹고ᄂᆞᆫ 그구차ᄒᆞᆫ ᄉᆞ람의게 돈젼촉도 심히ᄒᆞ지안코 괴한이되야셔 갑지못ᄒᆞ드래도 조르ᄂᆞᆫ법도업고 오히려돈을 더취ᄒᆞ야주어가며 특별이졍답게ᄒᆞ니ᄭᅡ 그부모ᄂᆞᆫ 그놈의 흉ᄒᆞᆫ마음은 조곰도아지못ᄒᆞ고 셰샹에업시 고마운ᄉᆞᄅᆞᆷ으로만 아랏네그려 이럿흣얼마동안을 지ᄂᆡ다가 ᄒᆞ로 그셔양ᄉᆞᄅᆞᆷ의말이 그ᄃᆡ의싸님이 ᄃᆡ단이 지조도잇고 사ᄅᆞᆷ이 영리ᄒᆞ니 내게빌니면 녀ᄌᆞ의상당ᄒᆞᆫ 공부ᄅᆞᆯ식이여쥬마고 친졀ᄒᆞᆫ말로 권ᄒᆞ니ᄭᅡ 그부모ᄂᆞᆫ 본래붓터 그셔양사ᄅᆞᆷ의게 신셰를졋슬뿐아니라 항상 고맙게ᄒᆞᄂᆞᆫ쏫을 감ᄉᆞ이알든터에 가령 그마음이 음흉ᄒᆞᆫ줄을 알드래도 거졀ᄒᆞ기가 ᄃᆡ단이 힘이들터인ᄃᆡ 그ᄯᅴ에 그 셔양ᄉᆞᄅᆞᆷ의나히ᄂᆞᆫ 발셔 륙십에ᄀᆞᆺ가운 늘근ᄉᆞᄅᆞᆷ이오 그ᄯᅳᆯ은 그때열륙칠셰밧게 아니된어린것인고로 셜마못된싱각이야 잇ᄉᆞ랴ᄒᆞ고 허락을ᄒᆞ얏든가보데 그후부터 져의집에다가 다려다두고 영어도가ᄅᆞ치고 방안 심부름도식히고 그럭져럭지내다가 어나결에 둘이이상

혼관계를 믹져셔 쳡과ᄀᆞ치 되여버렷네그려
묵묵히안져셔 듯고잇든 빅락관은 고ᄀᆡ를 ᄉᆞ덱ᄉᆞ덱ᄒᆞ며
「흥흥 계집이라ᄒᆞ는것은 모다그러ᄒᆞᆫ 물건이야
조병권은 홀련 빅락관의얼골을 ᄎᆡ여다보며
「이것참 별일일셰 그려 자네도 계집이약이에 참예ᄒᆞᆯᄯᅴ가 다잇나 허허허
이때에 긔차는 쇽역을다ᄒᆞ야 급히닷는ᄃᆡ 박휘구르는 소래는 뇌졍벽력ᄀᆞᆺᄒᆞ야
말소래가 자셔이 들니지아니ᄒᆞᆫ다
혼ᄉᆞ람은 이약이를 듯노라고 귀를기우리나 요란ᄒᆞᆫ긔차소래에 자셔히들니지
아니ᄒᆞᆫ다
「앗다 여보게 크게좀 이약이ᄒᆞ게 도모지아니들니니
유졍상은 빅락관의 무릅을탁치면셔
「여보게 빅락관 악가졍거쟝에셔 밧은믹쥬나 ᄒᆞᆫ병ᄊᆡ셔먹셰 목이컬컬ᄒᆞ니
곱보에 가득이ᄯᅡ른믹쥬를 우에겁품을 훅부러바리고 ᄒᆞᆫ입에마신후 유졍상은
다시 이약이를 시작ᄒᆞᆫ다
「그계집아히 일홈은 최만경(崔萬慶)이라ᄒᆞ는ᄃᆡ 그때 셔양사ᄅᆞᆷ의게 쇽아셔
몸을더럽힌후에는 져도마음에 부ᄉᆞ럽고 분ᄒᆞ야셔 져의집으로도라가려고ᄒᆞ
나 셔양ᄉᆞᄅᆞᆷ이 허락을아니ᄒᆞ니싸 엇졀슈업시 그ᄃᆡ로잇다가 그럭져럭 셔로

졍이드럿던지 그후에는 져의부모가 오라고ᄒᆞ야도 아니오네그려 그후로 ᄎᆞ
ᄎᆞ 그부모가 셔양사ᄅᆞᆷ과 ᄌᆞ긔ᄯᅳᆯᄉᆞ이에 과계가잇는 모양을아라던지 펄펄뛰
면셔ᄯᅳᆯ자식ᄒᆞ나 바렷다고 야단을치고 셔양사ᄅᆞᆷ의게가셔 담판을 크게일으
켜든가보데그려나 그러나 그셔양놈이 그싸진담판을 무셔ᄒᆞᆯ이가잇나 이왕그
지경이 되얏스니 아죠본마두라를 삼을ᄃᆡ이니 달나고ᄒᆞ나 듯지아니ᄒᆞ고 그
ᄯᅳᆯ다려 가ᄌᆞ고ᄒᆞᆫ즉 그ᄯᅳᆯ역시 울며불며 이위몸을 바렷스니 제발허락ᄒᆞ야달
나ᄒᆞ니싸 졔부모는 더욱분이나셔 ᄯᅳᆯᄌᆞ식ᄒᆞᆫ아로ᄒᆞ야셔 가문을 더럼혓ᄂᆞ니
ᄌᆞ식이아니니 의졀을ᄒᆞ나니ᄒᆞ고 야단을ᄒᆞᆫ들 임의변ᄒᆞᆫ마음이 다시회복ᄒᆞᆯ슈
잇나 그후로는 그부모가 다만ᄯᅳᆯᄒᆞ나를 ᄂᆡ바린ᄌᆞ식으로알고 ᄂᆡ바려두엇든
가보데 그리로라니ᄭᅡ 만경(萬慶)이는 점점 그셔양ᄉᆞᄅᆞᆷ의 총(寵)을엇어셔
ᄂᆡ졍외무(內政外務)를 모다 총찰ᄒᆞ게되얏는ᄃᆡ 만경이의성질이 역시 인식
ᄒᆞ야셔 ᄌᆞ긔슈즁으로 긔쳔금긔만금을 쓰지만은 져의부모ᄉᆞ집에는 업젼ᄒᆞᆫ
푼 오리동록을 봇ᄃᆡ여주는법이 엄네그려 그러ᄒᆞ니ᄭᅡ 점점 그 셔양ᄉᆞᄅᆞᆷ이
마음에마ᄌᆞ셔 ᄉᆞᄉᆞ로 잘근졍이 든모양인ᄃᆡ 그계집도 ᄎᆞᄎᆞ 그취리ᄒᆞ는쟝ᄉᆞ가
자미가 낫던지 돈이점ᄉᆞ느려가니ᄭᅡ 그돈이다 ᄂᆡ것이라고 욕심이불갓치나
셔 부모보다 돈이 졔일이라는 몰지각ᄒᆞᆫ마음이 드럿드라네
「어ㅣ참 계집이란것은 갓가이ᄒᆞ지 못ᄒᆞᆯ것이야

ᄒᆞ며 ᄇᆡᆨ락관은 미우간에 불쾌ᄒᆞᆫ빗이 낫타나며 말을ᄒᆞᆫ다

「그런데 원악 셩질이 민쳡ᄒᆞᆫ계집이라 ᄌᆞ연이 얼마되지아니ᄒᆞ야도 빗노이ᄒᆞᄂᆞᆫ속이 아조환ᄒᆞ야지니ᄭᅡ 그후에ᄂᆞᆫ 그셔양ᄉᆞ름이 가지아니 ᄒᆞ드ᄅᆡ도 쟤가 모도 ᄃᆡ신지촉도단이고 빗을줄만ᄒᆞᆫᄃᆡᄂᆞᆫ 쟤가임의로 주기도ᄒᆞᄂᆞᆫᄃᆡ 재작년부터ᄂᆞᆫ 그셔양ᄉᆞ름이 별안간에 즁풍이되야셔 오날날ᄭᆞ지라도 몸을쓰지못ᄒᆞ고 ᄃᆡ소변ᄭᆞ지 남의손을빌게되야셔 인제ᄂᆞᆫ 만경이가 져ᄒᆞᆫᄌᆞ 돈을가지고 좌지우지ᄒᆞᆫ다데 그리고 져의아바지ᄂᆞᆫ 작년에죽엇다ᄂᆞᆫᄃᆡ 무여굴머셔 죽엇나보데 그러나 인히그ᄯᆞᆯ은 다시보지아니ᄒᆞ고 그ᄯᆞᆯ도 져의아바지를 굴머죽게 ᄂᆡ바려두엇스니 엇지ᄉᆞ름의 졍이라고 할슈가잇나 그러나 그계집은 돈맛이여젼ᄒᆞ야셔 늙은셔양셔방은 ᄒᆞᆫ편에누여두고 ᄉᆞ방으로도라단니며 취리를ᄒᆞᄂᆞᆫᄃᆡ 그계집의 별명이 양빗장이라네

나히ᄂᆞᆫ 지금ᄉᆞ물한아ᄂᆞ 그러치아니ᄒᆞ면 갓ᄉᆞ물ᄯᅳᆷ되얏ᄂᆞᆫᄃᆡ 그져상죵ᄒᆞ기ᄂᆞᆫ 썩ᄌᆞ미잇지 얼골도어엿부고 목소릐도가늘고 졍답고 싹々ᄒᆞ고 ᄐᆡ도잇고 아모것도 모로ᄂᆞᆫ숫벅이 비슷도ᄒᆞ야보야셔 온젼을가지고 이것은 엇던나라 훈장일가요ᄒᆞ고 뭇기쉬울듯ᄒᆞ게 규즁에드러안잣ᄂᆞᆫ 녀ᄌᆞ갓히보야도 돈주고 표밧ᄂᆞᆫ것과 슈형의경위아ᄂᆞᆫ것과 돈지촉과 조를ᄯᆡᄂᆞᆫ ᄶᅵ레만이가 어듸를 당ᄒᆞ깃ᄂᆞ 그ᄯᅢᄂᆞᆫ보기에 아조마셥지 나도걸녀의게 「두셔너번 빗에졸녀보앗지만은

ᄯᅩᄒᆞᆫᄉᆞ름은 엽헤안졋다가

「그러면 지금ᄭᆞ지 ᄶᅵ레만이라ᄂᆞᆫ 셔양ᄉᆞ름은 즁풍이되야셔 누어잇단말이야

그런ᄃᆡ 그계집은 몸을조슈ᄒᆞ고 잇슬니가잇나 뒤ᄉᆞ문은 열어노아눈곳이 잇슬터이지 그럿치만은 남모르게ᄒᆞᄂᆞᆫ것이 그계집의 용ᄒᆞᆫ슈단이야

「슈단조ᄒᆞᆫ것도 탈이야

ᄒᆞ며 유졍상은 교의를 뒤으로기ᄃᆡ여 비스듬이 드러누으면셔 셜々웃ᄂᆞᆫ다 ᄒᆞᆫ좌즁이 모다ᄃᆡ소ᄒᆞᆫ다

유졍상은 고등학교 이년ᄉᆡᆼᄯᅢ부터 임의즁ᄒᆞᆫ변리에 치무를지고 독촉의 곤난을 ᄆᆡ일 면치못ᄒᆞᄂᆞᆫ몸이라 그외에도 여러ᄉᆞ름이 모다 그치무에 경험이업지아니ᄒᆞ되 다만 ᄇᆡᆨ락관과 신장우두ᄉᆞ름은 그와ᄀᆞᆺᄒᆞᆫ 경험을 ᄒᆞᆫ번도지ᄂᆡ본일이업다

긔차ᄂᆞᆫ 로량진에 도챡이되얏ᄂᆞᆫᄃᆡ 이일ᄒᆡᆼ의 ᄌᆞ미잇ᄂᆞᆫ 이약이를 건너교의에안져셔 방쳥ᄒᆞ고 잇던상인ᄀᆞᆺᄒᆞᆫᄉᆞ람이 우셔가며 그이약이를 ᄌᆞ미잇게듯고 잇다가 긔차가졍지ᄒᆞ미 염혜노엿던 가방을집어들고 차에나린다 잠시긔차안에셔ᄂᆞᆫ 이약이가 ᄭᅳᆫ이엿ᄂᆞᆫᄃᆡ ᄇᆡᆨ락관은 고ᄀᆡ를드리우고 무삼ᄉᆡᆼ각을 깁히ᄒᆞᄂᆞᆫ모양이러니 감앗던눈을 셔셔히ᄯᅳ며 혼ᄌᆞ말과ᄀᆞᆺ치 말을ᄒᆞᆫ다

「그후에ᄂᆞᆫ 누구던지 리슈일이 소식을 들은ᄉᆞ랍이 혹시잇나

「응 리슈일이」ᄒᆞ며 신쟝우는 다시문는다
ᄂᆡ가 ᄂᆡ게들엇던지 고리ᄃᆡ금(高利貸金)으로 빗노이ᄒᆞ는ᄉᆞ람의집 셔사 노릇을 ᄒᆞᆫ다든지 무엇신지 ᄒᆞᆫ다고ᄒᆞ데
염헤잇던 ᄯᅩᄒᆞᆫᄉᆞ람은 쌈작ᄉᆡᆼ각이나는듯이
「올치올치 나도 그런말을 들은법ᄒᆡ 그러나 리슈일이가 빗노이를 능히ᄒᆞᆯ가 원악그ᄉᆞ람의 셩질이 착ᄒᆞ기만ᄒᆞ야셔 남의ᄉᆞ졍을보기에 남의피극는영업을 ᄒᆞᆫ달슈잇다구ㅣ
빅락관은 그말이ᄂᆡ마음에 잇는ᄉᆡᆼ각과갓다ᄒᆞ는듯이 고ᄀᆡ만ᄉᆞᄶᅥᆨᄉᆞᄶᅥᆨᄒᆞ며 오히려 아모말이업다
유졍상과 조병권은 ᄒᆞᆫ학교에 다얏스되 학년이갓치 아니ᄒᆞ얏는고로 리슈일과는 셔로친치 못ᄒᆞᆫ터이라
빅락관은 고ᄀᆡ를 유리창밧글 ᄂᆡ다보며 길게ᄒᆞᆫ숨짓고
「허々 리슈일이가 그영업이야 ᄒᆞᆯ리가잇나 아마헛소문인게지 그ᄉᆞ람은 텬셩이인ᄌᆞᄒᆞ야셔 남의게 동졍을만이 표ᄒᆞ는ᄉᆞ람인ᄃᆡ 결단코 그러ᄒᆞᆯ리업지 앗가운ᄉᆞ람을 갓다가 불상ᄒᆞᆫ일이지 그만콤지조잇고 마음조ᄒᆞᆫᄉᆞ람은 이세상에 아마드물셀 그ᄉᆞ람이 지금잇셧드면……
ᄒᆞ며 챵연히 말을다맛치지못ᄒᆞ고 다시ᄒᆞᆫ숨을지으며

「그러나 ᄌᆞ네드른 그ᄉᆞ람을 지금만나보아도 아마얼골을 ᄌᆞ셔알아보지못ᄒᆞ리
신쟝우는 와락나안지며
「아 여보게 아모리눈이 무되이기로 그ᄉᆞ람이야 못알아본단말인가 명낭ᄒᆞ기가 ᄉᆡ人별ᄀᆞᆺᄒᆞᆫ눈에 곱다란이마젼이며 노ㅣ나는 그ᄉᆞ람의 엽 칙상에안져셔 모으로 그ᄉᆞ람의 얼골을 바라보면 ᄯᅳᆨ 비사ᄆᆡᆨ이 얼골ᄀᆞᆺ흐니 학교에와야 쓸ᄃᆡ업는 작란도아니ᄒᆞ고 고요히안져셔 션ᄉᆡᆼ님의 강의ᄒᆞ는말만 귀담아듯던 그얼골을 그동안에 이져바리깃나
빅락관은 쳔뎡을향ᄒᆞ야 샐々웃는다
「허허ᄌᆞ네가 ᄂᆡ의친형데ᄀᆞᆺᄒᆞᆫ 친구를 이젼영웅의게 비ᄒᆞ야주니 ᄃᆡ단고마워이 그회례로 이술이나 ᄒᆞᆫ잔먹게
ᄒᆞ며 손에드럿든 곱보를 신쟝우를주며 ᄆᆡᆨ쥬를가득이ᄲᅳᆯ아준다 신쟝우는 술잔을밧아 ᄒᆞᆫ입에다마시고
「참말 ᄌᆞ네는 리슈일이ᄒᆞ고는 친형데보다 더ᄒᆞ게 지ᄂᆡ엿스니ᄭᅡ 오ᄅᆡ못만나셔 각금보고십깃네
「나는 실상으로 죽은아오보다 살아잇는 리슈일을 못보아셔 항상마음이 셔ᄂᆞᆯᄒᆞ여이

ᄒᆞ며 빅락관은 쳐연(悽然)ᄒᆞᆫ 긔석으로 말을맛쳐고 다시 고ᄀᆡ를슉으리고 무삼싱각인지 한참을 말이업더니

「여보게 나는 악가 남ᄃᆡ문뎡거쟝에셔 이상ᄒᆞᆫ일을보앗네 다른것이아니라 뎡거쟝에셔 리수일이를 맛낫네그려 뎡녕그ᄉᆞ롬이 리수일이야 쳐음에는 졍거쟝 이등ᄀᆡᆨ ᄃᆡ합실에셔 ᄉᆞ롬름으로 잠간 리수일이얼골을 보앗는ᄃᆡ 하도 반가워셔 교의에셔 벌썩이러나셔 차지려고ᄒᆞ니ᄭᅡ 발셔 ᄉᆞ롬름에 셕기여셔 도모지 불수업더니 나죵에 차를타고 안ᄌᆞ셔 창밧그로 이리져리 ᄂᆡ여다보노라니ᄭᅡ 차는방금ᄯᅥ나려고 호각부는소ᄅᆡ가 나는ᄃᆡ 멀니셔 기동엽헤부러셔 ᄉᆞ々 나를보고 모ᄌᆞ를두루며 작별ᄒᆞ는것갓데그려 그ᄅᆡ셔 ᄌᆞ셔히바라보니ᄭᅡ 과연 그ᄉᆞ람이 리수일이데 나를보고 잘가라고 모ᄌᆞ을흔들제는 리수일이가 분명ᄒᆞ지안은가

영등포 영등포 에이도호ㅣ에이도호ㅣᄒᆞ고 역명(驛名)을 브르며 창밧그로역부드리외오고 지ᄂᆡ여가는ᄃᆡ 긔차는 임의영등포뎡거쟝 ᄲᅮ랏도홈에 다앗더라 나리는ᄉᆞ람 오르는ᄉᆞ람 뎡거쟝문압혜셔는 요령흔드는소리가 일시에 요란복잡ᄒᆞ야지며 그ᄉᆞ이로는 음식파는 아ᄒᆡ드리 목판을 언메이고 창업ᄒᆞ로 ᄅᆡ왕ᄒᆞ며 벤도비ㅣ루 마사무네 삼편ᄉᆞ이다

예십쟝 料理店 (료리뎜)

남ᄃᆡ문뎡거쟝 ᄲᅮ랏도홈에셔 ᄇᆡᆨ락관을보고 모ᄌᆞ두루던ᄉᆞ람은 과연 ᄇᆡᆨ락관의 말ᄒᆞᆫ바와ᄀᆞᆺ치 사년동안에 싱ᄉᆞ존몰을 아지못ᄒᆞ던 리수일이라

리수일은 그후로 죵젹을숨기여 친구의심방도 질기여ᄒᆞ지 아니ᄒᆞ고 소식ᄭᅡ지 ᄭᅳᆫ엇더라 그러나 친쳥과달음이 업시알고 지ᄂᆡ던ᄇᆡᆨ낙관은 항상마음에 잇지아니ᄒᆞ고 은근이 그동졍을 삼피기에 계으르지아니ᄒᆞ야 이날도 ᄇᆡᆨ락관은 귀국후에 즉시 진주군수의 영직을띄게된일도 알앗고 오후네시 급힝렬차로 ᄯᅥ나가는줄도 알앗슴으로 마음에 잇지못ᄒᆞ는친구의 여러히만에 얼골도 보고ᄌᆞ홈이오 돌지는 고싱ᄒᆞ든결과로 금일출졔ᄒᆞᆫ ᄇᆡᆨ락관의모양도 보고ᄌᆞ야 ᄉᆞ람름에셕기여 호올노 그벗을 작별홈이러라

리수일은 무슴연고로 ᄉᆞ년동안을 음신(音信)을 ᄭᅳᆫ엇스며 무슴연고로 항상사모ᄒᆞ고 잇지못ᄒᆞ든친구를 반가히만나보고 쟉별치아니ᄒᆞ고 몸을숨기ᄂᆞ뇨 그ᄉᆞ롬의 금일신졔와 경우를싱각ᄒᆞ면 다시 로로히 히셕(解釋)ᄒᆞᆯ필요도 업스리로다

뎡거쟝구ᄂᆡ ᄲᅮ랏도홈에셔 텰로타고 ᄯᅥ나가는ᄉᆞ롬을 젼송ᄒᆞ는ᄉᆞ롬은 다만 리슈일이 ᄒᆞᆫᄉᆞ롬ᄲᅮᆫ이아니라 무리무리로 모여셧든 남녀로약귀쳔(男女老弱貴賤)을 물론ᄒᆞ고 모다 졔각금 마음으로 근심으로 작별ᄒᆞ는ᄉᆞ롬 눈물로 작별ᄒᆞ는ᄉᆞ람 질거움으로 젼송ᄒᆞ는ᄉᆞ람 ᄯᅩ는 아무의미업시 보통인ᄉᆞ로 젼별ᄒᆞ는사

람 형형식식으로 각각졍리로되 그목젹ᄒᆞᄂᆞᆫ바ᄂᆞᆫ ᄒᆞᆫ가지라 긔쳑ᄒᆞᆫ소ᄅᆡ에 긔챠ᄂᆞᆫ셔셔이 움쟉여셔 ᄯᅥ나간후 슈분(數分)이 지나임ᄋᆡ 입장권(入場券) 가진사람은 한ᄉᆞᄅᆞᆷ허여지고 두ᄉᆞ람허여져 모다각각 도라가되 호올노 리슈일은 도라가기를 이져바리고 기동에 몸을실니고 고ᄀᆡ를슉이여 발아ᄅᆡ만 나려다보기를 한참이러니 믁어운짐을 버셔ᄂᆡ여더지듯 몸을ᄲᅮ리치고 발ᄯᅳᆺ을도로킬ᄯᅵ에ᄂᆞᆫ ᄯᅥᄯᅥ로모여잇던 ᄉᆞ람은 모다허여지고 그림ᄌᆞ도업ᄂᆞᆫᄃᆡ 역부이ᄉᆞᆷ인이 비를들고 ᄯᅡᆼ을쓰러 ᄂᆡ일ᄲᅮᆫ이라

리슈일은 양협에흘너나린 눈물을 슈건으로 남모르게씨셔바리고 호올노 느짐을 비로소ᄭᅵ다라 급히 도라나오ᄂᆞᆫᄃᆡ 졍거쟝이등ᄃᆡ합실(二等待合室) 문압흘지ᄂᆡ여나오려 ᄒᆞᆯ지음에 그안으로붓터 엇더ᄒᆞᆫ녀ᄌᆞ의 목소ᄅᆡ로

「리슈일시 리슈일시

ᄒᆞ며 부르ᄂᆞᆫᄉᆞ람이 잇ᄂᆞᆫ고로 거름을멈츄고 고ᄀᆡ를돌니여 바라보니 일위미인이 문에의지ᄒᆞ야셧ᄂᆞᆫᄃᆡ 손가락과 팔목에ᄂᆞᆫ 모다 금으로쟝식(裝飾)ᄒᆞ얏고 찬란ᄒᆞᆫ양복을 회ᄆᆡᄒᆞ게입엇스며 비단슈건으로 입을가리우고 고흔ᄃᆡ도로 눈에ᄂᆞᆫ 우음을ᄯᅴ웟더라

「아 최만경(崔萬慶)시 여긔 웬일이오

그부인은 어엿분우음으로써 맛거ᄂᆞᆯ 리슈일은 극히ᄂᆡᆼ담(冷淡)ᄒᆞᆫᄃᆡ도로 ᄃᆡ답

을ᄒᆞᆫ다 그부인은 죳ᄎᆞ나오며

「잠간만 져리로 드러가셔 안집시다 급히 의론ᄒᆞᆯ일이잇셔셔 좀뵈왓스면 ᄒᆞ얏더니 예서참 잘만낫소 엇덧든지 져교의로가서안쟈 이약이을ᄒᆞᆸ시다

리슈일은 마지못ᄒᆞ야 그녀ᄌᆞ의게 ᄯᅳᆯ니여셔 ᄃᆡ합실교의에 걸어안졋더라 최만경이라 ᄒᆞᄂᆞᆫ녀ᄌᆞᄂᆞᆫ 리슈일의 업흐로갓가이 다가안지며

「다른일이아니라 져ㅣ 남촌서 쟝목젼ᄒᆞᄂᆞᆫ 김영오의 ᄉᆞ건으로ᄒᆡ서 의론을 좀ᄒᆞ려고……

ᄒᆞ며 품쇽으로서 금시표를ᄂᆡ여 시간을보고 다시집어너흐며

「슈일시도 아즉 져녁은 아니잡슈셧지요 여긔셔ᄂᆞᆫ 번잡ᄒᆞ야셔 조용이 약이이ᄒᆞᆯ슈가업스니 어듸던지 조용ᄒᆞᆫ집으로가셔 이약이ᄒᆞᆸ시다 료리ㅅ집이라도 관계치아니ᄒᆞ니……

리슈일은 거문손ㅅ가방을 무릅우에올녀놋코 거러안졋ᄂᆞᆫᄃᆡ 최만경이라ᄒᆞᄂᆞᆫ녀ᄌᆞᄂᆞᆫ 교의에셔 몸을이러스며

「어셔 일어스시요

리슈일은 맛당치못ᄒᆞᆫ긔ᄉᆡᆨ이 얼골에낫타나며

「어ᄃᆡ로 가쟈ᄂᆞᆫ말이요

「어듸던지 가십시다그려 ᄂᆡᆫ들 알슈잇소 당신조흔신데로 가지요

「나역시 어듸가 조흔지 알수잇소
수일은 그녀즈와 혼가지로 가기를 심히쇠리여 ᄒᆞ는모양이라
「여보 엇덧든지 밧그로나가봅시다그려 네 수일시
「글셰
ᄒᆞ며 슈일은 그녀즈의게 쇠을녀 헐일업시 졍거쟝듸합실에셔 밧글향ᄒᆞ고 나오는듸 문으로좃ᄎᆞ 드러오는ᄉᆞ람과 셔로마조쳐서 쌈작놀늬여 도라보니 엇더ᄒᆞᆫ 늘근신ᄉᆞ한아이 최만경의 아름다음을 졍신업시 바라보고잇다 리슈일과 최만경두ᄉᆞ람은 뎡거쟝밧글나가셔 향ᄒᆞ는곳도업시 셔셔이 거러온다
「글세 여보 어듸로 가시려오
「나는 아모데라도
「슈일시는 노ㅣ 그럿케만 말을ᄒᆞ시니싸 어듸 결말이나깃소 아모듸든지 져녁밥먹을만ᄒᆞᆫ듸로 ᄲᅡᆨ 결졍을ᄒᆡ야지요
「글셰
최만경은 슈일이가 마음에질기여ᄒᆞ지 아니ᄒᆞᆷ을 모로는것도 아니엿만은 억지로ᄌᆞ긔의 마음에 ᄯᅡ로게ᄒᆞ고ᄌᆞ 싱각ᄒᆞ는고로 마음을밧아 쥬지아니ᄒᆞ는 슈일의몰풍미ᄒᆞᆫ 슈작도 오히려 달게녁이여

「그런듸 당신은 일본요리에 슉기약기라고ᄒᆞ는 젼골을잡슈시깃지요
「슉기약기응 그것도좃치요
「슉기약기가 시르시거든 양요리를 잡슈시려오
「아모것도 관계치아니ᄒᆞ지오
「엇지ᄒᆡ셔 듸답을 그럿케ᄒᆞ시오
「웨 듸답을 엇지ᄒᆞ얏단 말슴이오
이때에 수일은 비로소 최만경의게로 눈을향ᄒᆞ야 자서히보니 빅듸를먹음고 잔우슴을 항상띄워잇는 눈ᄲᅩ리는 더욱 아름다워보이며 그위인이 온젼치못ᄒᆞ다ᄒᆞ야 갓가이 마음을주어 언어를 ᄉᆞ괴이는범이업고 향상 멸니ᄒᆞ고 공경ᄒᆞ던 리수일도 이졔다시보미 과연 그 아름다운듸도는 엇덧타형언ᄒᆞ기 어려울 ᄉᆡ닷깃더라
최만경은 ᄌᆞ긔ᄀᆞᆺ흔압니에 ᄉᆞ이에는 금을세엿스니 우슬때마다 자긔ᄀᆞᆺ흔 힌니와 금니가 번쩍번쩍 광치나며
「그러면 아무데로나 가십시다 일본ᄉᆞ람의 슉기약기집으로가서 젼골에밥을 먹는게낫깃지요
「아모리나 그듸도좃코
두ᄉᆞ람은 뎐긔텰도(電氣鐵道)길노좃차 남듸문을 들어서셔 다시 회동(會洞)

병문으로 돌쳐드러스더니 동으로향ᄒᆞ야 ᄒᆞᆫ참가다가 남으로 조고마ᄒᆞᆫ 골목으로 ᄭᅩᆨ부러져 두서너집지내며 모퉁이 길ᄉᆞ가집으로 문압헤는불ᄭᅩᆨ 무른류리로 만든등에 화양요리(和洋料理)라 크게써셔잇고 아즉 황혼싸지에 이르지는 아니ᄒᆞ얏스되 불을혀셔 영롱ᄒᆞᆫ빗이 빗쵸이는ᄃᆡ 이슴층되는 화양졀충졔도(和洋折衷制度)로 지은료리뎜이라 다만남녀두사람이 남보기에는 푸산싸ᄃᆞᆺ이나 잇는것갓치 그료리뎜으로 드러슨다

최만경은 ᄲᅩᆨ이의게 무엇이라 말을ᄒᆞ더니 이층우으로 올나가지도 아니ᄒᆞ고 아ᄃᆡ층 ᄯᅡ로써러져셔 가장죵용ᄒᆞ고 은근ᄒᆞ야 남은보기에 그곳에 손이잇는지도 아지못ᄒᆞᆯ만ᄒᆞᆫ방으로인ᄒᆞ야 드러간다

최만경이라ᄒᆞ는 하이칼나부인과 이러ᄒᆞᆫ곳에옴을 리수일은 ᄌᆞ미업시 녁이여 화평ᄒᆞᆫ마음은 조금도업고 괴로와ᄒᆞ는긔식이 미우에가득ᄒᆞ야 수일은 말도아니ᄒᆞ고 다만최만경과 향ᄒᆞ야 ᄲᅩᆨ고리고안져잇다

양인은 ᄒᆞᆫ참동안은 말이업고 셔로ᄃᆡ하ᄒᆞ야 안잣는ᄃᆡ 두사람ᄉᆞ이 노야잇는 남포의불만 어두어가는ᄒᆡ에 점점 발가진다

「여보시오 슈일씨 편안이안지시구료 웨 금방다라날 ᄉᆞ람모양으로 그럿케 ᄲᅩᆨ고리고 안지셧소

「아니요나는 이럿케 안쟈잇는것이 편ᄒᆡ요 아모념녀마시오

「아이고 그럿케 셥셥ᄒᆞ게 구지마오 여보당신도

「나는 집에셔도 일상이모양으로 안쟈잇는 ᄉᆞ람인걸이요

「앗다그런거진말은 좀 고만두어요

이럿틋 말을ᄒᆞ되 리수일은 오히려 편안이안지아니ᄒᆞ고 두루막이엽흐로 손을 집어너허 좃기에셔 권연갑을내여 권연을ᄒᆞᆫ기 피우려ᄒᆞ는ᄃᆡ 공교히 ᄒᆞᆫ기도 남아잇는것이 업는지라 수일은 담ᄇᆡ를 청구ᄒᆞ려 손ᄉᆞ벽을쳐셔 하인을부르려ᄒᆞ는ᄃᆡ 최만경은 급히 ᄌᆞ긔의품속으로셔 담ᄇᆡ갑을 ᄂᆡ이더니 얘급권연(埃及煙草)ᄒᆞᆫ기를ᄂᆡ여 불을붓쳐쥬며

「우션 담ᄇᆡ가져올동안에 이것이라도 먼져잡수구료

그ᄉᆞ람의 쥬는권연이 입으로무는곳에는 금조희가 ᄃᆞᆯ넷다 등잔불에 그금ᄉᆞ빗이번쩍々々 광치가난다 니에도 금 손가락에도 금 팔목에도 금 시계줄도금시계도 금 심지어 권연에도 금이로다

금이로다 이셰상이 모다금이로다 금ㅣ 금ㅣ 과연 그마음속에도 금이 가득ᄒᆞ리로다 아ㅣ금ㅣ

ᄒᆞ며 리수일은 호올노 탄식ᄒᆞ기를 마지아니ᄒᆞᆫ다

「아니요 나는 그런 금물ᄲᅮ리ᄒᆞᆫ담ᄇᆡ는 조와ᄒᆞ지아니ᄒᆡ요

최만경은 수일의얼골을 물ᄉᆞ럼이 바라보며

(닉가 붓쳣더니 더러와셔 그리시오 씨셔드릴것을 닉가그만 쌈짝 이져바렷지요

ᄒᆞ며 수건을닉여 입에무럿던곳을 씻고씻는다 수일은황망히

아니요 닉가결단코 더럽다는것이아니라 본릭 그런권연은 조와ᄒᆞ지 아니ᄒᆡ요

최만경은 다시수일의얼골을 드려다보며

「응 그럿치요 닉가 드리는담비를 잡수시깃소 그릭서 의급권연은 도모지잡수어본일이 업지요 졍신을 좀 챠려야지요 요젼에 닉가당신 쥬인되는 김졍연(金正淵)시집에 갓슬쎡에 당신잇는 건넌방에가보니싸 칙상우에 의급권연을통으로놋코 잡슈든싱각은 ᄒᆞ지못ᄒᆞ오 그쎡는 그게의급이아니고 의급갓흔 담비던가

ᄒᆞ며 최만경은 수건으로 입을가리우고 웃기를 마지아니ᄒᆞᆫ다

수일은 헐일업셔 그담비를 바다가지고 피운다

조곰잇더니 비반을 압헤갓다놋는ᄃᆡ 최만경이던지 리수일이던지 모다 셕잔술을 능히 먹지못ᄒᆞ는스름이라 최만경은 잔에술을부어 권ᄒᆞ며

「ᄒᆞᆫ잔잡수시오

「쳔만에 나는 술이라면 젹구를못ᄒᆞ는 스람이오

「웨 또 그리시오 ᄒᆞᆫ잔만 잡숫구료 그러면 ᄆᆡᆨ쥬를 가져오락싸요

「아니 나는 술이라는것은 ᄆᆡᆨ쥬약쥬를 물론ᄒᆞ고 ᄒᆞᆫ잔도 먹지못ᄒᆡ요 당신이나 만이잡수시오

술이라ᄒᆞ는것은 비록조긔는 사양할지라도 남은싸라셔 권ᄒᆞ는것이 의례의ㅅ일이라 그러나 수일은 술을싸라 런ᄒᆞ는일도업고 다만 마음ᄃᆡ로 만이 잡수라ᄒᆞ는말ᄲᅮᆫ이라 최만경은 수일의ᄒᆞ는것을 미웁게도 싱각ᄒᆞ고 야속ᄒᆞ게도 싱각ᄒᆞᆫ다

「나는 일샹이럿케 밋쳔것갓흔 계집년이지요만은 못쳐럼싸라 노은 술을ᄒᆞᆫ잔도 아니잡수면 닉마음에는 셥셥지안소

수일은 마지못ᄒᆞ야 ᄒᆞᆫ잔을마시엿더라 그러나 쳐음에는 급ᄒᆞᆫ일이 잇다ᄒᆞ야셔이곳ᄭᅡ지 이르럿스되 급ᄒᆞ다ᄒᆞ던말은 도모지 긔구치아니ᄒᆞᆫ다 수일은 참다못ᄒᆞ야

「여보 만경시 악가급ᄒᆞᆫ일이라고 ᄒᆞ던것은 무엇이요 쟝목젼ᄒᆞ는 긴영오가엇지ᄒᆞ얏다는 말이오

「인졔 ᄎᆞᄎᆞ말슴ᄒᆞ지요 ᄒᆞᆫ잔만 더잘수시오 똑ᄒᆞᆫ잔만 더는권ᄒᆞ지 아니ᄒᆞᆯ터이니

슈일은 눈쏠을 찝푸린다